

MAESTRO

COVER STORY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COLUMN

열정(熱情)과 열정페이(熱情pay)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사상생활사박물관

9

September 2022
Vol.369



2023년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 부산문화회관 : 극장(대/중/챔버홀), 전시실
※ 사랑채극장은 연간 기획공연 진행에 따라 대관 불가
- ▶ 부산시민회관 : 극장(대/소), 전시실 1, 2

대관내용

구분	내용
대관기간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6개월)
대관가능일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부산시민회관(www.bscc.or.kr/citizen) 대관공지사항 참조
접수기간	2022년 9월 7일(수) 09:00 ~ 9월 20일(화) 18:00
접수방법	온라인 및 전자우편 접수(전화 및 구두/방문신청은 받지 않음) ▶ 온라인 : www.bscc.or.kr/rental ▶ 전자우편 - 부산문화회관 극장 rent@bscc.or.kr / 전시실 gjh1834@bscc.or.kr - 부산시민회관 극장 bch@bscc.or.kr / 전시실 binimel@bscc.or.kr ※ 접수시 제목을 [2023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대관 신청한 공연명으로 기입
결과회신	2022년 10월 중(예정)

대관심의 우선기준

- ▶ 순수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우선 대관
-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공연(행사) 및 전시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승인절차

- ▶ 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 심의회 결과 통보

대관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 ▶ (재)부산문화회관 대관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 시설대관신청서, 세부계획서 작성 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첨부
※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으며, 세부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전 대관하고자 하는 극장의 무대기술자료(홈페이지-(재)부산문화회관 소개-시설안내-공연장)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바라며, 아닐 시 대관취소 또는 공연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중복접수는 불가하며 중복접수 시 자동취소처리 됩니다.

사용료 납부

- ▶ 계약금(대관료의 20%) : 시설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 체결
- ▶ 잔금(대관료의 80%) : 대관 예정일 30일전 까지(대극장의 경우, 공연일 60일 전)
※ 대관승인일이 대관예정일까지 30일 이내의 경우 계약체결 즉시 전액 납부 또는 회관 지정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대관료 미입금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첼로
이바이 첸



첼로
최하영



지휘
서희태



PROGRAM

이바이 첸
P.I. Tchaikovsky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Op.33
M. Bruch
-Kol Nidrei Op.47


최하영
A.Dvořák
-Concerto for Cello and Orchestra in b minor, Op.104

연주 KNN 방송교향악단

 | QUEEN ELISABETH COMPETITION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2022.9.14. WED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방송교향악단 티켓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인터파크 문의 051) 607-6000 (ARS 1번)

2022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제18회 부산국제합창제



OCTOBER 19-22, 2022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참가부문

클래식 혼성 & 동성, 민속(전통), 팝 & 아카펠라, 청소년(18세 이하)

초청연주

스윙글스(The Swingles/영국)
 바버샵 콰텟: 애프터 아워스(Barbershop Quartet: After Hours/미국)
 텔콤 대학 합창단(Telkom University Choir/인도네시아)

제8회 창작합창곡 공모

마감 2022년 5월 31일

www.busanchoral.org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KCI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KNN
 협찬 대동대학교, 동성모터스, 반도건설, BNK 부산은행, SARATOGA, 삼성, 삼성전기, LET'S GO 2025, 스포츠서울, 양산병원, YOUNSAN METAL, 유영문화재단
 은산영양공부, CHANGSUNG ICT, 주류버스 LED


티켓예매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공연문의 070-4172-0682 busanchoral@gmail.com *부산국제합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2 부산국제합창제 초청연주회

2022년 10월 19일~21일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OPENING CONCERT 개막공연

THE SWINGLES

더 스윙글스 

그래미 어워드 5회에 빛나는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아카펠라 그룹


2022년 10월 19일(수) 20:00

티켓: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GALA CONCERT 1

BARBERSHOP QUARTET AFTER HOURS

바버샵 쿼텟 애프터 아워스 

바버샵 하모니 소사이어티 2018 인터내셔널 쿼텟 챔피언


2022년 10월 20일(목) 20:00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GALA CONCERT 2

TELKOM UNIVERSITY CHOIR

텔콤 대학 합창단 

2021 부산국제합창제 3관왕

2022년 10월 21일(금) 20:00

티켓: 전석 1만원



SunsFun
Haeundae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부산시립예술단 구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두개의 달

작 임은재

연출 염지선

출연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

2022. 9. 6(월)~9. 7(화)
오후 7시 30분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주최 |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제작 |

부산시립극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 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ARS 1번)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티켓 | 전석 2만원

관람연령 | 중학생이상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프로그램

문화재단
문화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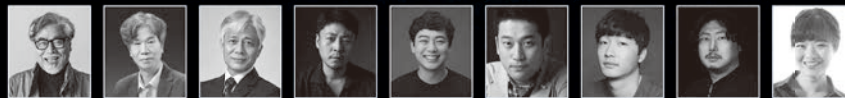
왕국의 전설

잃어버린 이야기

2022. 9.30.(금) 14:00 ~ 10.1.(토) 16: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2022. 10.7.(금) 19:30 ~ 10.8.(토) 16: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2022. 10.14.(금) 19:30 ~ 10.15.(토) 1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박찬영 박호천 배진만 이동현 송준승 김상호 박준서 윤준기 김아람



박센 이영준 박규한 김성열 김신호 배지현 강승환 김경훈

작 연출_김지용 작곡_전현미 인무/음악감독_홍충민 무대디자인_황지선 조명디자인_조세현 의상디자인_김현진
분장디자인_이지원 드라마틱_강태욱 조연출_이병길 기술감독_이현우 음향감독_이호원 무대감독_김상호
무대제작_아우라 스테이지 음향 오퍼레이터_윤해리 배진경 기획_홍보_김성모 전주희 오반석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제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래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TWODAY 문예 영도문화예술회관 (051-419-5571~4), 동래문화회관 (051-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예매 각 공연장 홈페이지 YES24.COM 티켓 티켓 20,000원, 할인대상은 각 공연장 규정에 따름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왕국의 전설 - 잃어버린 이야기는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평방극장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화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2022. 9. 20 화 - 23 금 10:30, 1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 이보람 연출 최용혁

작곡 이영재 무대디자인 이만호 조명디자인 조세현 의상디자인 손혜윤 분장디자인 이지원 영상감독 최승환 음향디자인 주호일 음향오퍼레이터 이호원
조연출 서선택 예술감독 김지용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홍보 권미정 박지현 출연 이현주 김은희 황창기 이수연 우성주 박미서 김희수 윤영식

CONTENTS

09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조대 September 2022 Vol.369

2022년 9월호 통권 369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윤두현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8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10 **Column**
열정(熱情)과 열정페이(熱情pay)
- 12 **Cover Story**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 16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⑭**
전쟁과 예술 ①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망명
- 20 **세계오페라축제 ⑧**
베르디와 베르디 오페라축제, 파르마
- 24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그땐 그랬지~ 어제를 딛고 현재에 서다
사상생활사박물관
- 27 **Preview**
- 38 **Issue**
2022 부산비엔날레
- 40 **Review**
- 42 **Program Guide**
- 57 **New Book**
- 58 **BSCC News**

SUN	MON	TUE	WED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안림</p>	<p>사랑채극장</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직컬 환경 퍼포먼스 '에코백' 9월 15일(목)-10월 9일(일) 평일 오전 11:0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관람 전 일정 확인 ■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4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전서진</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양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7월 9일(토)-10월 30일(일) 오전 10:00~오후 7:00(임정마감 오후 6:00) ※ 매주 월요일 휴관(공휴일 9/12, 10/3, 10/10 정상 운영) ■ 입장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 문 의 : (주)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p>	
<p>4</p> <p>제38회 전국공모 KBS부산 무용콩쿠르 본선 09:00 대 KBS부산방송총국(620-7327)</p>	<p>5</p>	<p>6</p> <p>◆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라'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VI '부산청년오케스트라' 19:30 중 전석 1만원/(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 듀오지음 창단연주회 19:30 챔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스콜콘서트' 15:00 대 초대/(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양상을 자비에 정기연주회 중 전석 2만원/양상블</p>
<p>11</p>	<p>12</p>	<p>13</p> <p>소프라노 정혜리 독창회 19:30 중 전석 2만원/문화윤곽(010-9281-2662)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환타지 음악이야기 19:30 챔 산파기획(010-8503-0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앤 조이' 연계특강 14:00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p>
<p>18</p> <p>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22 기획공연 '콘체르토 페스티벌' 19:00 중 초대/(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곽문정 귀국 플루트 리사이틀 17:00 챔 초대/마:트(010-2682-6971)</p>	<p>19</p>	<p>20</p> <p>제55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대 2만원-1만5천원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19:30 중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청년작곡가모임 제1회 작품 발표회 19:30 챔 초대/부산청년작곡가모임(010-8715-139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실내악 콘서트' 19:30 대 12만원-10만원-8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아트살롱(그림콘서트)' 가을 챔 전석 1만2천원/(재)부산문화회관</p>
<p>25</p> <p>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3:00, 17:00 대 초대/(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516-8293~4) 하비에르 하라 기타 리사이틀 15:00 챔 5만원-3만원 (주)케이아트엔컴퍼니(02-3471-0017)</p>	<p>26</p>	<p>27</p> <p>무지카비바 챔버양상을 제32회 정기연주회 'Autumn greeting' 19:30 챔 전석 2만원/무지카비바 챔버양상(010-9914-0292)</p>	<p>베이스 문동환이 부르는 챔 초대/문동환(010-4</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p>1</p> <p>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Ⅲ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 19:30 대 전석 1만원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p> <p>제1232회 MBC 목요일음악회 19:30 중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p> <p>작곡동인 세움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캠 초대/작곡동인 세움(010-3338-1906)</p>	<p>2</p> <p>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Ⅳ_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프라노 이지현 귀국독창회 19:30 캠 YJ클래식스(010-6307-6885)</p>	<p>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W.C.W.S IV '레이첼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17:00 대 7만원·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7:00 중 남구소년소녀합창단(607-4604)</p>
	<p>8</p> <p>국제음악제 스페셜 콘서트 국제음악제(516-8293~4) 19:30 비에(010-4006-0059)</p>	<p>9</p> <p>향사회 창작음악 페스티벌 '향사회 제59회 작곡발표회' 19:30 중 초대/향사회(010-4550-1299)</p> <p>2022 이주형 플루트 독주회 19:30 캠 전석 1만원/음악실험실 짜임(010-2032-2211)</p>	<p>10</p> <p>2022 김창완밴드 콘서트 19:00 대 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파이오니아(주)(1899-3725)</p> <p>향사회 창작음악 페스티벌 '이상근 탄생 백주년 기념음악회' 17:00 중 초대/향사회(010-4550-1299)</p> <p>세상을 향한 기도 17:00 캠 퓨전양상블(010-3156-3156)</p>
	<p>15</p> <p>제9회 해원정기연주회 'Mainstream' 19:30 대 무료/해원초등학교(740-9902)</p> <p>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19:3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19:30 캠 초대/유주영(010-6630-5535)</p>	<p>16</p> <p>향사회 창작음악 페스티벌 '향사회 제59회 작곡발표회' 19:30 중 초대/향사회(010-4550-1299)</p> <p>2022 이주형 플루트 독주회 19:30 캠 전석 1만원/음악실험실 짜임(010-2032-2211)</p>	<p>17</p> <p>2022 김창완밴드 콘서트 19:00 대 8만8천원·7만7천원·6만6천원 파이오니아(주)(1899-3725)</p> <p>향사회 창작음악 페스티벌 '이상근 탄생 백주년 기념음악회' 17:00 중 초대/향사회(010-4550-1299)</p> <p>세상을 향한 기도 17:00 캠 퓨전양상블(010-3156-3156)</p>
	<p>22</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심포니야' 19:3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3</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그때도 오늘' 19:3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하지원 피아노 독주회 19:00 캠 전석 2만원/하지원(010-4577-6001)</p>	<p>24</p> <p>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13:00, 17:00 대 초대/(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그때도 오늘' 15:0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 루체아르떼 기획공연 'Amicitia Young Artist Concert' 17:00 캠 초대/루체아르떼(010-9703-2605)</p>
	<p>29</p> <p>작곡그룹 An-ti Stimmung 제22회 작품발표회 19:30 캠 초대/작곡그룹 An-ti Stimmung(010-8212-0222)</p>	<p>30</p> <p>유도원 작곡발표회 19:30 캠 초대/현대문화기획(02-2266-1307)</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공연</p>	<p>부산시민회관 전시실</p> <p>보헤스님의 차향그리기 8월 30일(화)-9월 11일(일) 전시실1 ※ 월요일 휴관 최인락 010-8689-9809</p> <p>청허 서용스님 한국화 선서화전 9월 13일(화)-9월 18일(일) 전시실 1 묘심사 242-1608</p>	<p>제41회 부산 전국 사진촬영대회 공모전 9월 22일(목)-9월 24일(토) 전시실 1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시지회 631-4111</p> <p>제18회 부산국제차아울림문화제 9월 29일(목)-10월 2일(일) 전시실1, 2 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p>	
<p>4</p> <p>한번 더 힘을 내 13:00, 15:00 대 (주)케이타이거즈(010-7553-0251)</p>	<p>5</p>	<p>6</p>	
<p>11</p>	<p>12</p>	<p>13</p>	
<p>18</p> <p>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5 '감염된 도시의 비밀' 11:00, 14:00 대 6만6천원-5만5천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19</p>	<p>20</p> <p>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소년B가 사는 집' 10:30, 14:00 소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21</p> <p>부산콘서트밴드 초청 가 대 대양고등학교(640-C 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 10:30, 14:00 소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p>
<p>25</p> <p>시크릿췌췌 별의여신 뮤지컬 시즌3 11:00, 14:00 대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26</p>	<p>27</p>	<p>28</p> <p>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 명품극장 '명성황후' 19 소 무료(초등학생 이상, (재)부산문화회관(6</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2	3
		가족뮤지컬 '뱀벌레장군과 호랑이' 16:00 Ⓢ 전석 3만원/극단 바위처럼(1577-4868)	가족뮤지컬 '뱀벌레장군과 호랑이' 11:00, 14:00 Ⓢ 전석 3만원/극단 바위처럼(1577-4868)
7	8	9	10
4	15	16	17
	2022 케니 지 월드투어 내한공연 16:00, 20:00 Ⓢ 15만4천원·13만2천원·11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5 '감염된 도시의 비밀' 11:00, 14:00, 16:30 Ⓢ 6만6천원·5만5천원 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11	22	23	24
올음악회 14:00 (0647, 010-4544-4966) 공연 '소년B가 사는 집' (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 콘서트VI '지브리음악대축전' 19:30 Ⓢ 전석 5만원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516-8293~4) 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소년B가 사는 집' 10:30, 14:00 Ⓢ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소년B가 사는 집' 10:30, 14:00 Ⓢ 전석 2만원/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시크릿주주 별의여신 뮤지컬 시즌3 11:00, 14:00, 16:30 Ⓢ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
8	29	30	
가있었는데_배사시 10:00 (선착순 예매) (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10:00 Ⓢ 전석 2만원(만 3세이상, 단체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10:00 Ⓢ 전석 2만원(만 3세이상, 단체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차와 춤을 사랑한 문조익황제 14:00 Ⓢ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010-7490-7337)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열정(熱情)과 열정페이(熱情pay)

정두환 문화유목민, 음악평론가

지독하게도 무더웠던 여름이 한 발 물러가고 시원함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왔다. 자연의 흐름은 한결같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알려준다. 늘 같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한결같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이 서로를 향한 신뢰로 이어지니 말이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뿌리이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 청년 일자리가 사회의 가장 중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부터 일반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 대학에서



예술 전공분야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인문학의 뿌리인 철학자가 대학에서 사라지더니 예술계도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단과대학으로 음악대학 하나 없이 학과로 운영되고 있던 부산의 음악학과도 그 자리를 내어놓기 시작하였고, 학과를 폐과 또는 입학생 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학과 운영과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어지는 것은 예정된 일이다. 어릴 때부터 이미 전공이 정해져 앞만 보고 한길만 달려온 이들에게 폐과 또는 학과 축소는 그들이 모든 열정을 다바쳐 달려오던 것을 멈추고 이제 그만하라는 선고와도 같다.

국어사전에서 열정을 찾아보았다.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들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필자에게는 이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생각과 다양한 실험을 하며 지낸 시간이 너무도 길다. 다시금 열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음악을 먼저 한 선생과 선배들이 모두 지혜를 모음과 동시에 음악 후배들과 더불어 집단 지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집단지성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모든 자(尺)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기원 ‘2022 부산오페라시즌’에서는 8월 26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콘서트 오페라 ‘가면무도회(Un ballo in maschera)’를 시작으로 (재)부산문화회관의 전막 오페라 ‘라 보엠(La Boheme)’, (재)영화의전당의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필자 역시 지난해에는 영화의전당 콘서트오페라 ‘카르멘’에 예술감독으로 참여하였다. 여기서 고민하였던 것은 공연장 특색에 맞는 오페라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참여 공연장 모두가 공연장 특색에 중요성을 두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각 개최 공연장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공연을 소화하였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오페라시즌이 2021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다. 지난해 오페라시즌의 평가에서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제작극장 가능성을 위해 오케스트라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올해 2022년에는 제작극장으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시즌 단원으로 모집, 시즌 전체 공연에 출연하게 하여 연주력 향상과 공연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오디션 참여율 저조로 소기의 목적은 미치지 못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믿음과 신뢰의 부족이었으며, 공정한 자(尺)의 부재였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평균 3~4번의 오케스트라 연습과 리허설 및 공연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올해는 5~10번의 연습과 리허설 및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연주료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지불된다고 하니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열정페이’를 요구한다 하여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 방과 후와 공연들을 뛰어야 하는 연주자들 입장에서 긴 연습 일정으로 개개인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 또한 응시율을 낮춘 결과가 되었다.

연주자들의 단합된 연주력과 지속적인 오케스트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습 일정과 연주료를 이어가면서 지휘자들 개인의 지도력과 연주력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 실력을 같은 자(尺)로 보여줄 때 제작극장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연주자들의 열정페이를 요구하기 전에 지도자들의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제작극장으로서의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큰 틀에서 모든 음악인들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최자인 부산시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공론화할 때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제작극장으로의 성공에 연착륙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산 소재 대학의 음악 및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어 자신의 예술혼에 열정을 태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 청년이 부산에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피아니스트 정명훈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무대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MAESTRO

MYUNG WHUN CHUNG CHAMBER MUSIC CONCERT

정명훈과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양상블 무대

With 김수연(Vn), 김사라(Va)
송영훈(Vc), 성민제(Db)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피아니스트로 부산을 찾는다.

그동안 지휘자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실내악 무대만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온 정명훈은 이번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음악가들과 함께 실내악 콘서트를 갖는다. 평소 실내악을 '서로 힘을 합쳐 만드는 음악'이라며 양상블의 힘을 강조해온 정명훈은 지난 1980-90년대 누나인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함께 '정트리오' 멤버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시절에도 실내악 무대에 종종 올랐던 정명훈은 2019년에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 함께 실내악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영적인 지휘자'로 극찬받은 마에스트로 실내악 무대로 돌아오다

프랑스 <르 몽드>지가 '영적인 지휘자'라고 극찬한 지휘자 정명훈은 1974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2위 수상하며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뉴욕 매네스 음대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공부한 정명훈은 1979년 거장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보조지휘자로 경력을 시작하여, 2년 후 이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임명되었다. 1984-1990년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1987-1992년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플로렌스 시립극장) 수석 객원지휘자, 1989-1994년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2000년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탈리아에 대한 애정으로 1997-2005년 로마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수년간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밀접하게 활동하기도 했다. 정명훈은 그의 음악적인 업적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에서 '프레미오 아비아티 상'과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상'을 수상했으며, 프랑스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1992년)'을 비롯하여 유수의 상을 수상했다.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코망되르 훈장'을, 2017년에는 이탈리아



국가공로훈장인 ‘콤포멘다토레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탈리아’를 수여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정명훈과 함께 현재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라히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을 역임한 김사라,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 독보적인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 등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이 앙상블 멤버로 참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공연이 기대된다. 이들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브람스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비유했다고 부연해 ‘베르테르 4중주곡’으로도 불리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제3번 다단조’와 실내악곡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인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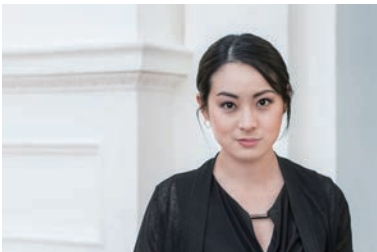


바이올린 김수연

최고의 감동,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연주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BBC 매거진으로부터 ‘최고의 감동,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연주, 메마른 감성의 청중이 아니라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은 2003년 레오폴트 모차르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006년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세계적인 명성의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4위에 입상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동안 쿠르트 마주어, 엘리야후 인발, 정명훈, 안드리스 넬슨스, 스티븐 슬로언, 발터 벨러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극장 오케스트라, 코펜하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덴바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뮌헨 심포니커, 바이에른 챔버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13/14 시즌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북남미 등에서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리사이틀을 가진 바 있다. 김수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유수의 현악 4중주단으로 손꼽히는 아르테미스 콰르텟 멤버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는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의 악장으로 활동 중이다.



비올라 김사라

다양한 음악적 색깔과 모험적인 해석

넘쳐흐르는 에너지의 비올리스트 김사라

독일 멘델스존 콩쿠르를 비롯한 6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은 비올리스트 김사라는 어린 시절부터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 러시아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많은 연주 활동을 펼쳐왔다. 2012년 Deutsche Stiftung Musikleben 재단의 50주년 기념 여름 콘서트와 베를린 대통령궁 콘서트에 초청받아 독일 대통령 앞에서 연주했으며,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를 포함한 독일 각지에서 초청 리사이틀을 가졌다. 2015년 막스 로스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비올라 부문 2위와 청중상을 받은 김사라는 2013년 독일 주립 브라운슈바이크 오케스

트라 수석 비올리스트로 발탁되어 이듬해 종신 수석단원이 되었다. 2016년 여름, 한국인 비올리스트 최초로 바이로이트 바그너 축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초청받아 입단했으며, 2019/20 시즌부터 2년간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첼로 송영훈

완벽한 기교와 따뜻한 감성

클래식 한류열풍의 주역 첼리스트 송영훈

9세의 어린 나이에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데뷔한 첼리스트 송영훈은 2001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인 2002년에는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 파울로 첼로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같은 해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로 임명받았다. 솔리스트로서 그동안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뉴욕 챔버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챔버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요미우리 도쿄 심포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세계의 주요 공연장에서 정명훈, 마르타 아르헤리치, 유리 바슈메트, 아르토 노라스 등과 같은 뛰어난 음악가들과 함께 활발한 활약을 펼친 바 있다. 클래식 한류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그는 일본 각지에서도 성공적인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2013년부터 매해 꾸준히 초청받아 리사이틀 투어를 갖고 있다. 송영훈은 연주 활동 외에도 2015년부터 KBS 1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알리는 데 힘써오고 있다.



더블베이스 성민제

3대 더블베이스 국제콩쿠르를 모두 석권한

더블베이스계의 핫이슈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는 16세의 나이에 세계적 권위의 요한 마티아스 스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아시아인으로 우승한데 이어 마르크노이키르헨 국제 콩쿠르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하는 등 3대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를 모두 석권하며 국내외 더블베이스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제 더블베이스 앙상블 '바시오나 아모로사'와 함께 미국 카네기 홀에서 데뷔한 후 베를린 필하모닉 체임버홀 독주회로 독일 데뷔 무대를 가진 성민제는 더블베이스 연주자 최초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초청 독주회를 가졌으며, 카잘스 페스티벌에 최연소 연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첫 번째 음반 '더블베이스의 비행'이 더블베이스 솔로 최초로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로 발매되어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5집 앨범까지 발매하여 더블베이스 솔로 연주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특히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함께 3집 앨범 'Unplugged'를 발매하고 자라섬 페스티벌, ACC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재즈 연주에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성민제는 현재 클라츠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몰토 콰르텟 리더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쟁과 예술 ①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망명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1 말레비치, <나무꾼>, 1912년, 캔버스에 유채, 94×71.5cm, Stedelijk Museum, Amsterdam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는 또 놀랐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전쟁은 항상 있었지만, 이번 침공은 아직 아물지 않은 세계 대전의 상처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나 물가 상승 등 전쟁의 영향을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이 전시는 전쟁 이전부터 기획되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 정부로부터 전시 중인 작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아직 계약된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였다. 이 소식을 듣자, 뭔가 아이러니한 감정이 들었다. 러시아에서 소중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 미

술들이 정작 러시아 혁명기에는 인정받지 못한 예술이었기 때문이다. 혁명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미술로 시작되었고 지금은 미술사에 주요한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당시 혁명정부에서는 의욕적인 이 미술을 이해하지 못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은 전위적이라는 말 그대로 시대를 너무나 앞섰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과 아방가르드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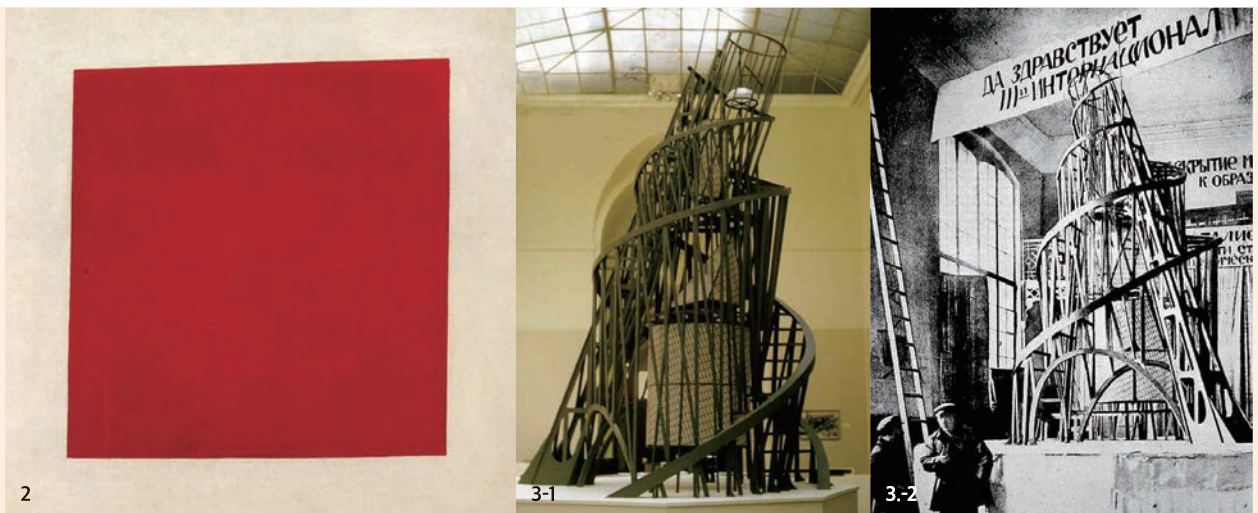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세계는 서구 열강의 세력 다툼과 이념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웠다.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의 <자본론(das Kapital)>이 출판되며 이상향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사이 러시아 왕정은 무너지고 있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있던 거대한 국가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이상국을 꿈꾸는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들 역시 이상적인 국가에 맞는 예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중 한 명인 말레비치(Kasimir Severinovich Malevich, 1878-1935)

는 문학가 마야콥스키(Mayakovskii)와 함께 ‘절대적으로 순수한 기하학적 추상을 표방’하는 절대주의(Suprematism) 선언을 1915년에 하면서 미래를 위한 예술을 제시하였다. 당시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독일에서 추상회화를 시작했고,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Piet Mondrian)도 추상을 향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듯 추상회화를 시대를 이끄는 미술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전 유럽에 등장했고, 말레비치 역시 새로운 러시아를 위한 미술을 절대적인 추상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이 세상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면, 말레비치는 구체적 현실을 바탕으로 했다. 절대주의 선언을 하기 전에 기하학 형태를 바탕으로 한 <나무꾼>[도판 1]에서도 숲에서 거대한 나무를 벌목하고 자르는 노동자의 모습을 원기둥과 원뿔 등의 기본 도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말레비치의 대표적인 절대주의 회화인 <붉은 사각형>[도판 2]의 부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차원 평면 속에서 농민에 대한 회화적 리얼리즘’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혁명정부가 주장하는 농민에 대한 현실적 고찰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하얀 사각형을 뒤편이 살짝 기울어져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떠한 묘사도 없는 붉은 사각형이 가득 채우고 있다. 어떠한 형상도 설명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붉

은 사각형 안에 더 많은 생각과 현실을 담을 수 있다. 말레비치가 추상회화로 이상적인 미래를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 1885-1953)은 산업 재료로 만든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자 하였다. 타틀린은 “이제 미술가는 단순히 건축가(constructor)이며, 기술자, 그리고 지휘자이며 감독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구축주의(Constructivism)’를 형성했다. 구축주의 예술가들은 기하 형태를 가진 예술작품을 당시 떠오른 새로운 산업용 재료들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물감이나 대리석 등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예술이 아닌, 새로운 재료를 통한 예술을 감독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타틀린의 이상은 <제3세계 인터내셔널을 향한 움직임>[도판 3]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작품은 완성품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위한 건축을 위한 모형이다. 타틀린은 강철과 유리 등으로 건축하고 그 안의 구성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건물을 구상했다. 그는 그저 조각가나 화가가 아닌 건축가이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구축가로 기능하고자 한 것이다. 이 모형을 타틀린은 파리 박람회에 제시하면서, 새로운 러시아가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고, 게다가 혁명정부는 타틀린의 이러한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말레비치, <붉은 사각형; 2차원 평면 속에서 농민에 대한 회화적 리얼리즘> 1915년, 캔버스에 유채, 53×53cm, State Russian Museum, St. Petersburg
3 타틀린, <제3세계 인터내셔널을 향한 움직임>, 1919년 설계(1920년 오리지널 모형 파괴, 1967년-1968년 재구성), Stockholm Moderna Muséet



국가를 떠나 세계화된 예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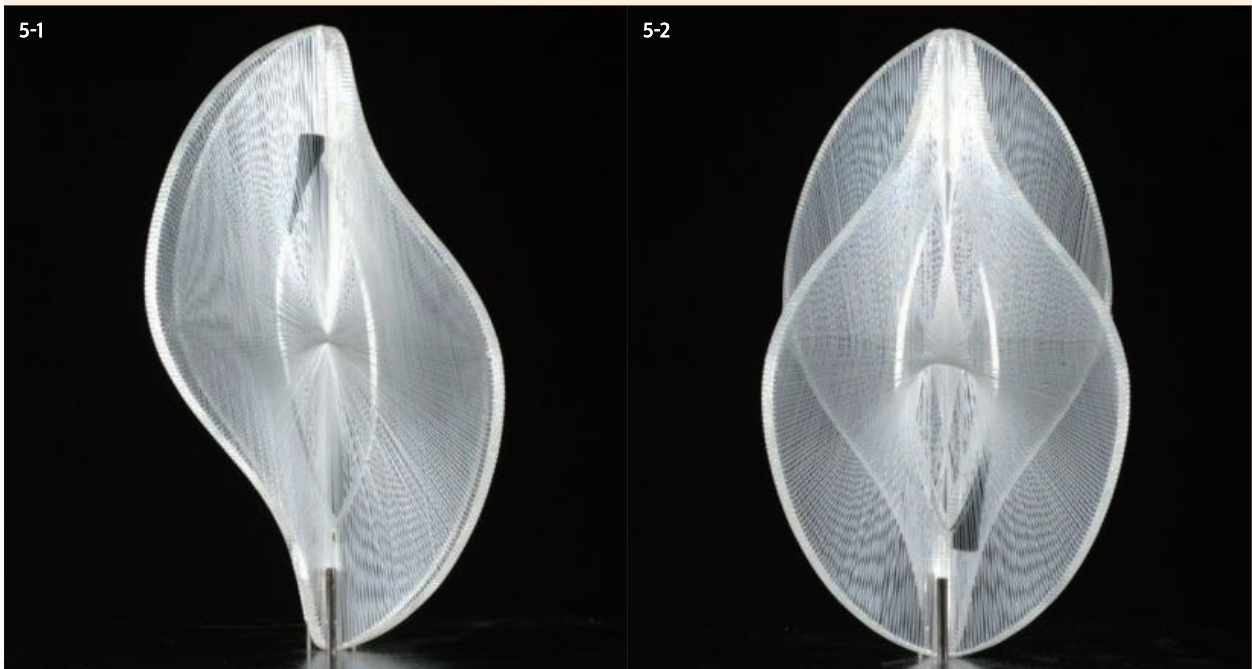
절대주의자 말레비치와 구축주의자 타틀린의 생각은 혁명정부에서는 수용되지 못했다. 1920년대에 세워진 소비에트 연방정부(소련)의 미술 정책에 따라, 혁명정신을 표현하지 못한 예술이라 평가되었다. 소련에서 인정한 예술은 페트로프-보드킨(Kuzma Petrov-Vodkin)의 작품 **[도판 4]**처럼, 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노동자의 모습을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예술지상주의를 기반으로 한 순수예술을 배격하고, 혁명정신을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예술만을 옹호했다. 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 Realism)’ 예술로 현재도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주요한 예술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구체적으로 혁명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던 말레비치를 비롯한 당시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은 더이상 자신의 국가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저 인정을 못 받은 것을 넘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방

식으로 예술을 제작하지 않는다면 숙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많은 예술가가 러시아를 떠나 서유럽과 미국으로 망명했다.

나치정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독일의 예술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에서 교육하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예술이념을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치에 의하여 바우하우스 역시 폐교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더 멀리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렇게 절대주의와 구축주의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술은 강제적으로 국가를 떠나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다. 러시아 조각가 나움가보(Naum Gabo, 1890-1977) 역시 말레비치와 함께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였지만, 이후 베를린 바우하우스와 파리에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하였다. 주로 금속이나 플렉시글라스, 나일론 등 산업재료를 활용하면서, 기하학 조형의 조각을 작업하였다. **[도판 5]** 투명한 아크릴 소재의 재료로 유선형의 틀을 잡고 이를 투명한 나일론 실로 규칙적으로 연결을 한 이 작업은 3차원 공간에 대한 수학적 구조를 시각화



4
페트로프-보드킨
<정치 장교의 죽음>
1928년, 캔버스에 유채
195×248cm
Russian Museum



5 나옴 가보, <선형 공간 구성 No.2>, 1959-60년, 나일론 실로 연결된 퍼스펙스, 59×59×79.5(h)cm, Lehmbbruck Museum

한다. 산업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과 함께, 투명한 요소들의 반복을 통해 반투명한 공간을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을 깨뜨렸다. 나옴 가보는 1946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여생을 새로운 국가에서 자신의 예술을 이어나갔다. 말레비치, 타틀린 그리고 가보 등의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의 시도는 산업화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인해 변한 과거와 현실에 대한 고민이 예술로 표현된 것이다. 화학의 발달로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지고, 산업화와 전쟁으로 국가 간의 경계는 허물어졌으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과 미술

비록 고국 러시아에서 자신의 예술과 미래에 대한 이상을 꽃피울 수는 없었지만,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예술은 세계에서 빛나게 되었다. 이들의 예술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어쩌면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좋은 결과였지만, 당

시에는 좌절된 꿈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 한국에서도 유사했다. 공산당이 집권한 북한 지역에 있던 화가들은 혁명정신을 선전할 그림을 그릴 것을 요구받았다. 일부는 이에 찬동했지만, 이중섭과 같은 경우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한국전쟁 발발 후 고향을 등지고 남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되어온 전쟁에 미술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혁명정신과 함께하고자 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서방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처럼 말이다.

그런데 나옴 가보가 그랬듯, 러시아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미국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머물며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를 했다. 하지만 독일에 머물던 예술가들은 또 다른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된다. 바로 나치에 의해서였다. 히틀러의 예술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러시아 혁명정부처럼, 새로운 예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에 의해 탄압받아 '퇴폐미술'이라 낙인찍혔던 미술을 다음에 이어서 보고자 한다.

베르디와 베르디 오페라축제, 파르마

VERDI
VERDI OPERA FESTIVAL,
PARMA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이견이 있을수 있지만 단 한명의 오페라 작곡가를 꼽으라면 필자는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일생동안 약 30편의 오페라를 작곡한 베르디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이며, 그의 오페라 작품은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파토리 중 하나가 되었다.

1813년 10월 10일, 이탈리아 북중부 작은 시골마을 론콜레(Roncole)에서 태어난 베르디는 근처 베세토(Beseto)에서 수학을 후 밀라노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앞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라 말한 이유는 그의 초기작 중 ‘나부코(1842)’,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1843)’, ‘에르나니(1844)’, ‘잔다르크(1845)’, ‘레냐노의 전쟁(1849)’ 등 애국과 독립정신을 주제로 만든 오페라 작품들 때문이다.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합





1 파르마 레지오 극장(Teatro Regio di Parma) 2 론콜레(Roncole)에 위치한 베르디 생가

스부르크)나 프랑스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을 염원하던 때였기 때문에 베르디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는 오페라 작곡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탈리아 전역에는 작곡가의 이름을 딴 오페라 극장과 축제가 몇 있는데 도니제티가 태어난 베르가모의 도니제티 극장, 그리고 벨리니가 태어났던 시칠리아 카타니아에 있는 마시모 벨리니 극장, 그리고 조아키노 로시니가 태어난 페사로에 로시니 극장이 있다. 그런데 베르디의 이름을 딴 극장은 이탈리아 전역에 줄잡아도 10개 가까이 된다. 이 중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베르디가 성장기를 보낸 부세토의 베르디 극장이다.

앞서 작곡가의 이름을 딴 오페라 극장이 작곡가가 태어난 도시에 기념비적으로 남아 있고, 해마다 작곡가를 기리는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베르디의 경우는 그가 태어났던 10월을 전후로 해서 파르마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파르마 레지오 극장(Teatro Regio Parma)은 토리노와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단 두 개의 왕립 극장이기도 하다. ‘Regio’는 이탈리아어로 영어의 ‘Royal’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렇다면 파르마와 베르디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

사실 파르마는 미식가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르마산 치즈의 본고장이기 때문이다. 파르마산 치즈는 이탈리아 요리에서 주요 재료로 쓰이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간단히 ‘파르미자노(Parmigiano)’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파미잔(Parmesan)’이라고 한다. ‘파르미자노’나 ‘파미잔’은 ‘파르마의’, ‘파르마 사람(의)’, ‘파르마 시민(의)’란 뜻이다. 파르마는 치즈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급 유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파르마 사람들은 이와 같이 최고급 수준의 ‘음식 문화’를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수준 높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파르마의 수준 높은 문화를 대변해주는 이곳의 왕립 오페라 극장이 베르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4

3 부세토 베르디 극장(Teatro Giuseppe Verdi Busseto) 4 바레치 생가, 부세토(Busseto)

파르마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안토니오 바레치(Piazza Antonio Barezzi) 광장의 왕립 파르마 극장은 합스부르크가의 공주이며 나폴레옹의 두 번째 부인인 마리아 루이지아가 파르마 공국을 통치할 때인 1829년 개관,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이나 나폴리의 산카를로 극장에 비하면 다소 왜소한 크기의 이 극장은 신고전주의 풍의 양식으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지만 파르마의 오페라 관객들은 매우 수준 높고 까다로워서 작품의 완성도는 유럽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안토니오 바레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파르마 사람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는 오페라 극장 앞 광장을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일까? 바레치는 음악사에 등장하는 음악가도 아니고 마리아 루이지아처럼 귀족 통치자도 아닌 단지 파르마 근교의 조그만 시골도시 부세토

에서 양조장과, 또 요즘으로 말하면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시골 부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베르디 오페라를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베르디가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했기 때문이다. 밀라노 음악원 입학시험에 낙방했을 때 초차도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훗날 그의 딸과 베르디를 결혼까지 시킨다. 하지만 베르디는 이내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했고, 앞친데 뒷친격으로 스칼라 극장에 올려진 ‘하루만의 임금님(Un Giorno di Regno)’이 흥행에서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베르디는 개인적인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고 1842년 ‘나부코’의 성공으로 대작곡가의 대열에 들어선다.

베르디는 파르마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페라 ‘아이다’의 파르마 공연을 계기로 파르미자노, 즉 ‘파르마 사람’이 되었다. 이 오페라는 수에즈 운하의 개통에 맞추어 이집트의

카이로 극장에서 초연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1872년 밀라노의 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고 그 해 4월 파르마에서 공연되었는데 파르마 공연을 앞둔 4월 5일, 파르마시는 베르디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으며, 베르디가 타계한 후에는 시내에 그를 기념하는 거대한 제단을 세우기도 했다.

파르마에서는 1989년부터 베르디 탄생 즈음인 9월, 10월 베르디 음악축제가 열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재미 있는 건 파르마 공항의 이름도 베르디 공항(Aeroporto di Parma Giuseppe Verdi)이다. 아마도 오페라 작곡가의 이름을 딴 유일한 공항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바르샤바 국제공항이 프레데릭 쇼팽 공항이지만, 쇼팽은 오페라를 한편도 남기지 않았다. 바이로이트가 바그너의 성지인

듯 파르마는 도시 구석구석 베르디의 이름으로 그를 기리고 있다.

2022년 9~10월 개최되는 베르디 오페라축제의 경우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 ‘시몬 보카네그라(Simon Boccanegra)’, ‘파르지팔(Parsifal)’ 등 5편의 오페라와 베르디 ‘레퀴엠(Messa de Requiem)’, 그리고 몇 차례의 갈라 콘서트가 메인 오페라 극장인 파르마 레지오 장과 부세토 베르디극장(Teatro Giuseppe Verdi di Busseto), 그리고 인근 도시 피덴차 극장에서 열린다. 이 밖에도 앞서 소개했던 베로나 오페라축제의 경우도 1913년, 바로 주세페 베르디(1813~1901) 탄생 100주년이던 해에 처음 개최되었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오페라 ‘아이다’가 무대에 올랐다.

5 베르디 동상, 부세토(Busseto) 6 베르디 오페라 축제 2019





ECOMUSEUM

사상생활사박물관

그땐 그랬지~
어제를 딛고 현재에 서다

막나무
자유기고가



“재치국 사이소~ 재치국~” 어둠이 채 물러가기 전인 새벽 어스름부터 양 동이를 이고 골목길을 누비던 그이들은 목소리도 어찌면 그렇게 크고 맑았을까? 어머니는 냄비를 들고 나가 국을 받아왔고, 아침밥상에는 약간의 정구지가 더해진 하얀 국물이 과음한 아버지의 쓰린 속을 달래주었다. 그 때 부산 전역을 누비고 다녔던 분들의 출발지는 사상구 낙동강 일대. 여기서 출발하여 새벽에 고객들에게 다다르려면 야밤의 먼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도 없고, 마땅한 이동수단도 없으니 할 수 없는 노릇. 다 팔고 빈 양동이를 들고서야 버스를 타고 귀가했으리라. 집에 돌아간들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강바닥을 굽어 잡아온 재첩들을 해감하고, 깨끗이 씻어서 끓이고, 또 살과 껍데기를 분리해서 한 번 더 끓여내는 노동이 더해져야 다음날 아침도 “재치국 사이소”를 외칠 수 있었겠지.

삼락천변 주택가에 소담하게 자리잡은 사상생활사박물관은 사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해주는 곳이다. 낙동강 주변에 자리 잡고 살기 위해선 굳고 좋은 걸 따질 새 없이 일하고 또 일해야 했다. 강 주변에 가득





했던 갈대를 엮어 빗자루를 만들어 팔아야 했고, 모래갯벌에 숨은 재첩들을 잡아 올려 끓여야 했다. 그러던 중 1965년부터 사상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신발과 섬유, 금속과 기계가 활발히 생산되면서 일자리는 공장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에는 사상지역에 근무하는 노동자 수만 해도 12만 명에 이르렀다니 그 호황은 엄청났으리라. 공해(公害)로 낙동강은 오염되고, 하구언까지 생겨 바다로 통하는 길을 막으면서 재첩은 사라졌다니, 기쁨의 뒤안에는 슬픔이 도사리고, 햇볕이 쨍쨍하면 그림자도 선명한 것이 삶의 모습이라. '재치국아지매'의 딸들 중 많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했고, 또 밤에는 학교를 다녔다. 잠을 푹 못자는 것은 대를 잇는 괴로움이었나 보다.

이제는 그 공장들도 점점 사라져 잊혀질 것만 같은 사상의 어제를 잘 그려내 주는 곳이 사상생활사박물관이다. 부족하나마 주차장을 갖추었고, 1층부터 3층까지 총 641m²의 공간에 차곡차곡 사상의 이야기들을 담아두었다. 과거의 공업지역을 상징하는 벽돌건물과 미래를 표현하는 유리건물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 이동통로를 두었다. 과거와 미래는 마치 원인과 결과인 것처럼 이어져 있다는 뜻이라. 2013년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추진 계획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진 끝에 주민공동체 '셋강사람들이' 구성되어 도서관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시해설,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을 주도하고, 사상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데 발 벗고 나서는 주체가 셋강 사람들. 실제 우리들을 맞이하고 관람길을 안내하고, 찬찬히 설명하는 분들이 모두 자원봉사자들이었으니, 사상생활사박물관이 또 달리 커 보인다.

9월 18일까지 열리는 기획전시 <마음에 새겨진 기억, 옛엄공을 그리다>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엄공동 출신 만화가 김광성이 기억하는 50~60년전 고향의 모습이 생생하게 수목화로 소환되고 있다. 문화해설사분이 옆에서 그림의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알려주니, 그림을 보는 맛이 산다. 뿐만 아니라 사상지역에 오래 터를 잡고 지내셨던 분들이 <사상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통해 고단하지만 뿌듯했던 과거의 삶과 노동을 털어놓는다. 한편에 실제처럼 꾸며놓은 음악다방에서는 낭만과 사연을 실어날랐던 DJ의 음성이 금방이라도 들릴 것만 같다. 강과 함께 살았던 주민들의 모습, 공장지대로 변모한 사상의 영웅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사상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낙관도 잊지 않고 약속해 두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코로나를 딛고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함께 어울려 곳곳하게 살아냈고 또 살아갈 사상주민의 생활사가 잘 담겨진 박물관이다.

사상생활사박물관에서는 현재 엄공동 출신의 만화가 김광성이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을 수목화로 그린 <마음에 새겨진 기억, 옛엄공을 그리다>가 기획전으로 열리고 있다.



관람시간 오전 9:00~오후 6:00(무료관람, 입장마감 오후 5:30)
※ 매주 월요일 휴관(공휴일이면 다음날 휴관)

문의 사상생활사박물관 051-310-5136~8 sasang.go.kr/lmuseum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차세대 연주자들이 부산을 찾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2022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첼로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첼리스트 최하영과 그의 뒤를 이어 2위 입상한 첼리스트 이바이 첸이 함께 하는 무대로, 상임지휘자 서희태가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와 브루흐, 드보르작의 작품을 들려준다.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서 매년 5월마다 개최되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는 벨기에 왕 알베르 1세의 왕비이자 레오폴드 3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왕비가 지난 1937년, 벨기에가 배출한 바이올린계의 거장 외젠 이자이(1858~1931)를 기리기 위해 시작한 이자이 콩쿠르에서 유래한 국제콩쿠르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1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부에서는 첼리스트 이바이 첸의 무대가 펼쳐진다. 현재 바젤 국립음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바이 첸은 폴란드 루토스와프스키 국제첼로콩쿠르 3등, 루마니아 에네스쿠 콩쿠르 2등,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5등을 거머쥐며 어린

나이에 이미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동안 아마데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폴란드 국립 오페라, 남서독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우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케이프 타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과 브루흐 '콜 니드라이 작품 47'을 들려준다.

이어 2부에서는 첼리스트 최하영이 드보르작의 대표작이자 보케리니, 하이든의 협주곡과 함께 3대 첼로협주곡으로 유명한 '첼로협주곡 작품 104'를 들려준다. 지난 2011년, 13살의 나이로 출전한 오스트리아 브람스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 크로아티아 안토니오 야니그로 주니어 콩쿠르 우승, 2018년 폴란드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국제첼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어려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은 최하영은 그동안 크레머타 발티카,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베를린 심포니, 부천필, 수원시향, 성남시향 등과 협연하고 시티 오브 런던 페스티벌, 크론베르크 첼로 페스티벌, 프라드 파블로 카잘스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하영은 영국 퍼셀 음악원과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전문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베를린 예술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일 시 9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 합창지휘계를 이끌어갈 신진지휘자의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가 9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신진지휘자의 등용문이 될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임희준과 함께 그라츠 징크라이스 라나흐 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김진영이 1, 2부로 나뉘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현대음악 작곡가의 합창곡을 소개한다.

1부 무대의 지휘를 맡은 지휘자 임희준은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하고 합창 강국인 에스토니아로 유학을 떠나 Estonian Academy of Music and Theatre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및 합창 지휘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Seoul Baroque Consort 합창단과 Eurasian Chamber Orchestra를 창단, 음악감독을 역임한 임희준은 2018 유럽연합 지휘 콩쿠르 본선에 진출했으며, Pärnu City Orchestra 단원들이 선정한 최고 지휘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작곡가 에릭 사티 등과 함께 ‘프랑스 6인조’로 불렸던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폴 랑크의 ‘Quatre motets pour un temps de pénitence’

와 종교 합창곡으로 이름을 알린 영국의 작곡가 존 타버너(John Tavener)의 ‘Svyati’를 들려준다. 특히 첼로의 선율과 함께하는 합창곡 ‘Svyati’에서는 현재 POS Trio, ADER Cello Quartet 멤버로 한국과 유럽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첼리스트 박건우가 함께 한다. 박건우는 연세대학교 관현악과를 전제 수석으로 졸업한 후 도독, 에센폴크방 국립음대 석사과정,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들을 배출한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첼로부문 파이널에 올라 1위없는 4위 및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2부 무대의 지휘를 맡은 지휘자 김진영은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대학에서 합창지휘 학사 및 석사, 관현악지휘 학사 및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친 후 오페라코치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Gala der jungen Stimmen 예술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한 김진영은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본인이 직접 편곡한 오스트리아 민요와 ‘Die sulm und die Weinberg’, ‘Es Kalte Wasser! es gibt kalte Brünn’ 등 요들 2곡을 비롯해 리투아니아 작곡가 비타우타스 미슈키니스, 핀란드 작곡가 맨티에르비, 독일 작곡가 헬무트 페르틀의 합창곡을 들려준다.

일 시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지컬 환경 퍼포먼스 에코백



- 환경지킴이 에코와 그린, 박스맨이 함께 떠나는 환경 여행, 그루잠 프로덕션의 매지컬 환경 퍼포먼스 '에코백'이 9월 15일부터 한 달간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진다.

어린이 전용극장인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로, '깨끗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공연과 전시가 결합된 무대이다.

인간이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자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에코백'은 마술사 에코와 그린의 이야기를 품은 동화적인 마술, 눈높이에 맞는 연극과 마임, 그림자와 음악극의 만남, 그리고 모든 관객이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요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여기에 택배 상자, 빗자루, 핸드폰, 분리수거 상자 등 생활 쓰레기로 만든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마법적인 연출과 조명, 음악과 결합시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편리함의 대명사 스마트폰, 택배 등에서 시작하여 해양오염, 기후변화, 탄소 중립까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지를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

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 또한, 공연과 더불어 작가, 환경연구소, 아동·청소년 전문가, 설치미술가와 협업한 전시 및 체험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공연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환경 놀이터를 제공, 공연에 대한 즐거움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심어준다.

'에코백'은 지난해 2021년 신나는 예술 여행(아동·청소년)에 선정됐으며, 2021년 아시테지(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여름축제, 2021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가족 축제에 공식 초청받아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를 제작한 그루잠 프로덕션은 부산을 기반으로 한 공연단체로, 지난 2019년에는 논버벌 퍼포먼스 '스냅 SNAP'으로 미국 브로드웨이 42번가에 위치한 세계적인 가족극장 '뉴 빅토리 시어터'에서 공식초청받아 한 달간 유료관객 95.7%라는 큰 흥행성적을 남긴 바 있다. 뉴욕타임즈로부터 '마법지팡이가 없어도 되는 마법사들'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2020년에는 IPAY(세계아동청소년국제공연예술연맹)에 공식 초청받는 등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

일 시 9월 15일(목)-10월 9일(일) 평일 오전 11:00(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만 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 **전통음악의 계승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이 품격있는 전통음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하는 '전통음악의 밤'이 9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통의 바탕 위에 오늘날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무대로, 1부에서는 궁중음악, 2부에서는 민속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우리 전통음악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수석 송강수의 집박으로 진행되는 1부 무대에서는 관악합주 '함령지곡'을 시작으로 현악 취타 '수요남극', 피리 독주 '자진한잎(염양춘)', 단소·양금 병주 '헌천수'를 들려준다. 피리가 주선율을 이끄는 관악합주곡인 '함령지곡'은 원곡인 관악영상회상 8곡 가운데 5번째 곡인 삼현도드리 한 곡을 연주하거나 삼현도드리에서부터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까지 이어서 연주하는 것을 통칭한다. 곡 이름인 '함령'은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는 뜻으로,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화려하면서도 경쾌한 춤의 움직임에 잘 어울리는 평화롭고 밝은 느낌을 주는 곡이다. 타령, 혹은 취타로 불리는 '수요남극'은 임금의 거동이나 고관의 행차, 군대 행진

에 쓰이는 행진곡으로, 관현악으로 연주할 때는 '만파정식지곡(萬波停息之曲)', 현악만으로 연주할 때는 '수요남극(壽耀南極)'이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피리 부수석 김용우가 들려주는 '자진한잎(염양춘)'은 봄의 풍요를 표현한 곡으로, 피리의 목가적인 음색과 다이내믹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단원 조은경(단소), 장미진(양금)의 병주로 들려주는 '헌천수'는 부드럽고 청아한 단소와 양금이 어우러져서 화사한 느낌을 자아낸다.

민속음악으로 꾸며지는 2부에서는 대금산조 '원장현류', 남도민요 '육자배기', 경기도당굿을 들려준다. 대금수석 한영길이 들려주는 대금산조 '원장현류'는 화려한 가락과 섬세한 시김새, 대금 특유의 음색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짜임새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도민요는 다른 지역 민요에 비해 아주 극적인 요소가 많으며, 노래를 부를 때는 굵은 목소리로 놀러내는 경향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가 대표적인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들려준다. 이어서는 경기무속 고유의 장단을 바탕으로, 이채로운 리듬감과 특유의 장단 변화로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경기도당굿으로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일 시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 부산시립극단이 중·고등학생들의 예술문화체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예술교육공연 '소년 B가 사는 집'이 9월 20일부터 나흘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관객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제작공연을 통해 부산시립극단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객층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마련한 무대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중·고생들을 위한 성장드라마 '소년 B가 사는 집'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이보람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 소년과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냉담한 시선을 그리고 있다.

'소년 B가 사는 집'은 열네 살 때 친구를 죽이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출소한 주인공 '대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대환의 엄마와 아빠는 대환이 새로운 삶을 살게끔 아등바등 노력을 하지만 주변인들의 시선은 그다지 굽지 않다. '악마의 집'으로 낙인찍힌 채 살아가는 대환의 집에는 아이들이 던진 돌이 날아들기도 하며 집 앞의 가로등조차 제대로 수리를 해주지 않아 해가 지면 늘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대환의 아버지는 대환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더딘 시간 속에서 소년 B의 환영이 대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번 무대의 연출은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상임연출가로 있는 최용혁이 맡아 작품을 통해 '소년범죄자', '죄와 벌', '용서', '선입견'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반향을 던진다. 최용혁 연출가는 "내가 만약 '대환'이라면? 내 가족이 만약 '대환'이라면? 그리고 만약 내 친구가 대환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소년 A인가, 소년 B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들이 "무대 위 주인공 '대환'이 아닌 지극히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관람하면 더욱 깊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연출가 최용혁은 그동안 '선샤인의 전사들', '뮤지컬 이몽룡', '운약' 등을 연출한 바 있으며, 2019년 부산연극제 연출상, 최우수작품상과 더불어 대한민국연극제 은상(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 시 9월 20일-23일 화-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프로코피에프, 라벨,
그리고 슈만과 만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기획음악회 '심포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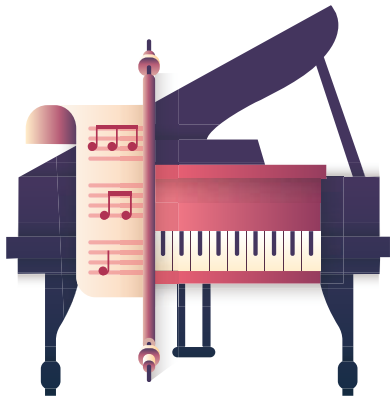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10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 기획음악회 '심포니야'는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RS 1번)

올해로 창단 6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가을의 길목에서 프
로코피에프, 라벨, 그리고 슈만의 작품으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다.

9월 23일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에서는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정통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프로코피에프의 대표곡으로 꾸며
지며, 10월 7일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에서는 프랑
스 인상주의 작곡가인 라벨의 관현악곡이 연주된다. 특히 이번 무
대에서는 2015년 부조니 국제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문지영
과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한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각각 협연을 맡아 무대를 더욱 풍성하
게 꾸며준다.

부조니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함께 하는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에서 러시아의 3대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라 불리는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
3번'과 프로코피에프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교향곡 제5번'
으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
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행보를 닮은
연주자라는 평가와 더불어 국내외 가장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인 문
지영과 호흡을 맞춘다.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지난 2014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와
2015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후,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과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독
주회를 통해 가장 주목 받는 젊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우승자를 내지 않은 부조니 국
제 콩쿠르에서 15년 만에 나온 우승자이자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 부조니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
었던 외르크 데무스로부터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
악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문지영은 이번 무대에서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프로코피에프가 남긴 다섯 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현대 피아노 협주곡의 백미'로 손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곡은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으로, 이 곡은 프로코피에프가 1929년 초연한 교향곡 제4번 이후 무려 15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진 뒤에 작곡된 작품이다. 프로코피에프 스스로가 이 작품을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에 대한 찬가'라고 표현했듯이 전체적으로 밝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곡으로, 프로코피에프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된 공연으로, 당시에도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기대를 받은 바 있다.

음악칼럼니스트의 상세한 해설로 만나는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

정기연주회 공연 하루 전날인 9월 22일 열리는 기획음악회 '심포니야夜'에서는 제591회 정기연주회의 메인 프로그램인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을 음악칼럼니스트 황정원의 해설과 함께 미리 만날 수 있다.

'심포니야夜'는 관현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교향곡을 보다 심도있게 감상하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로,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무대를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어 음악학도와 클래식 매니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꼼꼼하고 진지한 해설로 두터운 팬을 확보하고 있는 황장원 칼럼니스트가 해설을 맡아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에 대한 곡의 이해를 돕는다.

3년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곡 사이클' 무대

지난 2019년 슈트라우스 교향시 사이클을 끝낸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슈트라우스에 이어 선택한 작곡가는 '관현

악법의 마술사' 모리스 라벨로, 지난 2020년부터 라벨의 관현악곡 열두 작품 전곡을 완주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해왔다. 평소 라벨을 존경했던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라벨 음악의 정교함, 꼼꼼함을 빗대어 스위스계였던 그의 아버지 혈통과 관련지어 라벨을 '스위스 시계장인'에 비유했다. 그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능수능란한 오케스트레이션 기법과 이로 인해 풍부하게 울려 나오는 색채적인 효과로, 라벨은 드뷔시와 함께 프랑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로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이날 무대에서는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 '볼레로' 등 두 개의 관현악곡을 들려준다. 특히 '볼레로'는 지난해 신년음악회에서 당시 축소된 편성으로 연주됐으나 이번 무대에서는 모든 악기가 제대로 갖춰진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준다. 또한, 라벨의 작품 연주에 앞서 1부에서는 최근 가장 핫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신창용이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이자 낭만시대를 관통하는 걸작인 '피아노 협주곡'으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린다.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 한국인 최초 1위, 2017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2016년 힐튼헤드 국제피아노 콩쿠르 1위 수상하고 그동안 뉴욕 카네기 와일홀, 뉴포트 뮤직 페스티벌, 미국 최대 클래식 라디오 채널 WQXR, 뉴욕 스타인웨이 홀 아티스트 시리즈, 독일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이탈리아 바를레타 뮤직 페스티벌, 스타인웨이 소사이어티 시리즈,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 등에 초청되어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2018년 Steinway & Sons 레이블로 발매되었던 그의 첫 음반은 미국 최대 클래식 라디오 채널인 WQXR에서 '2018 최고의 음반들'에 선정된 데 이어 2019년 발매된 그의 두 번째 앨범 역시 'ClassicsToday'에서 호평받았으며, 2020년에는 그의 세 번째 앨범 'Gaspard de la Nuit'이 발매된 바 있다.

지휘 최수열



피아노 문지영



피아노 신창용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그때도 오늘**



● **역사 속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연극 ‘그때도 오늘’이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연극 ‘나와 할아버지’, ‘템플’ 등 신선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온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가 선보이는 2022년 첫 신작인 ‘그때도 오늘’은 서로 다른 4개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을 풀어내는 에피소드 형식의 2인극이다.

‘그때도 오늘’은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를 시작으로 1940년대 제주도, 1980년대 부산, 2020년대 최전방 등 한국 근현대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독립 또는 평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꿨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통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다채롭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본다. 특히 각 지방색에 맞는 사투리를 근간으로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표현한다. 이번 무대는 연극 ‘템플’, ‘뚝뚝’, ‘나와 할아버지’ 등 참신한 시도로 관객과 평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던 민준호가 연출을, 연극 ‘비클래스’, ‘러브 스키퍼’ 등을 통해 인정받은 작가 오인하가 대본을 맡았다

에피소드 1에서는 1920년대 경성에서 독립군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잡혀 감옥에 갇힌 용진과 윤재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에피소드 2에서는 1940년대 제주를 배경으로 동네 친

구인 사섭과 윤삼의 갈등을 다룬다. 에피소드 3은 1980년대 부산의 유치장에 갇힌 월남전 참전용사 해동과 시위에 참가한 학생 주호의 사연이며, 에피소드 4에서는 2020년대 가까운 미래 최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은규와 문석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그려진다.

이번 무대에서 1920년대 윤재, 1940년대 사섭, 1980년대 주호, 2020년대 은규 역의 남자 1 배역은 드라마 ‘여신강림’, 연극 ‘령스’ 등 공연뿐만 아니라 매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의식, 연극 ‘뜨거운 여름’, ‘완벽한 타인’ 등으로 안무가에 이어 연극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김설진이 연기한다. 또, 1920년대 용진, 1940년대 윤삼, 1980년대 해동, 2020년대 문석 역의 남자 2 배역은 영화와 드라마를 섭렵하고 7년만에 신작으로 연극 무대로 돌아온 이희준, 연극 ‘완벽한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연극에 도전하는 이시언이 맡아 ‘그때의 오늘’을 실감 나게 보여준다.

일 시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만 13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이 9월 29일부터 사흘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부산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발레단 중 하나인 김옥련발레단을 초청, 마련한 무대로, 김옥련 발레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을 선보인다.

김옥련발레단의 가족발레 공연은 지난 2002년 '가자 숲속으로'를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창작발레극을 선보이며 올해로 21년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거인의 정원'은 김옥련발레단이 그동안 선보인 10여 개의 레퍼토리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난 2014년 첫선을 보인 후 9년째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다.

작품의 원작인 '거인의 정원'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영미문학의 대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 동화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아동문학의 고전이다. 작품 속 아름답고 커다란 정원을 가진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을 내쫓고 높은 담을 쌓는다. 아이들이 떠난 정원에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만 계속되고 거인은 점점 힘을 잃어간다. 그러

던 어느 날, 아이들이 정원으로 숨어들어오고 거인의 정원에 도 꽃 피는 봄이 찾아온다. 거인은 그제서야 아이들의 웃음이 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거인의 정원'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거인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다는 내용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다.

발레 '거인의 정원'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레뿐만 아니라 극적 효과를 위해 배우가 출연하여 몸짓과 대사를 사용하고, 타 장르와의 융합과 협업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특히 2장에서는 줄거리와는 상관없이 무용수들의 인기를 보여주는 '디베르티스망'과 남녀 독무인 '바리에이션'이 펼쳐지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1995년 창단된 후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온 김옥련발레단은 특히 잘 알려진 문예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한 창작발레를 지향하는 한편, 춤의 저변확대를 위한 어린이 발레를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특히 창작발레 '부산시민 장기려', '운현궁의 봄', 발레컬(발레+뮤지컬) '운수 좋은 날', '윤희신', '해운대 연가', 총체극 '분홍신 그 남자' 등 수많은 발레 공연을 선보이며 예술의 일상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일 시 9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전 10:00(학생 단체관람),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만 3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라 보엠' LA BOHÈME

2022년 10월 1일 - 10월 2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한 전막 오페라 '라 보엠'이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역의 공공극장이 참여하는 오페라 축제의 장

이번 무대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22 부산오페라시즌' 무대로,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참여하여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오페라시즌'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온 '부산오페라WEEK'의 새로운 명칭으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공공극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성과 작품성, 예술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콘서트 오페라 '가면무도회'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 금정문화회관을 비롯해 (재)부산문화회관, (재)영화의전당 등 3개의 공공극장이 참여하여 관객과 함께하는 오페라 축제의 장을 선보이고 있다.

푸치니의 낭만주의 오페라 '라 보엠' 전막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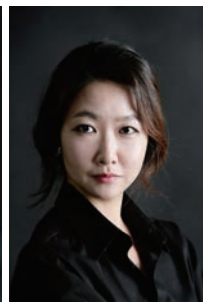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선택한 오페라는 오페라 '나비부인',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이라 꼽히는 낭만주의 오페라 '라 보엠'. 지난 2019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2021년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이어 (재)부산문화회관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제작 오페라로, 특히 지역 오페라의 구심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구오페라하우스와의 공동제작으로 진행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로 각색되어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진 오페라 '라 보엠'은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지휘 백진현



연출 엄숙정



테너 정호윤



테너 권재희



소프라노 황수미



소프라노 박하나



바리톤 문정현



바리톤 김종표



소프라노 강소영



철학자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지닌 젊고 가난한 예술가 4인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로돌포의 슬픈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보헤미안처럼 가난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푸치니의 실제 경험이 '라 보엠'을 더욱더 생생하고 사실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선사하는 완성도 높은 무대

이번 오페라 '라 보엠'을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난한 시인 로돌포 역에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 전속가수로 발탁되어 비엔나 국립오페라에서 한국인 테너 최초로 '리골레토' 주역으로 데뷔한 테너 정호윤,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으로부터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리릭테너'라는 호평을 받은 경북대학교 권재희 교수가 맡았으며, 로돌포를 사랑하는 미미 역에는 2014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와 극장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황수미, 월프 트랩 오페라 (Wolf Trap Opera)의 '라 보엠' 주역 출연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즈로부터 호평받은 부산대학교 박하나 교수가 맡아 호흡을 맞춘다.

정호윤은 1999년 동아콩쿠르 대상을 시작으로 2000년 제 1회 국립오페라 콩쿠르 대상, 2001년 벨기에 왕립 베르비에 국제성악콩쿠르 대상, 2003년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콩쿠르 입상 등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권재희는 그동안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발레리 게르기에프를 비롯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음악감독인 아니크 네제 세갱, 핀커스 슈타인베르그, 필립 요르단, 로베르토 아바도,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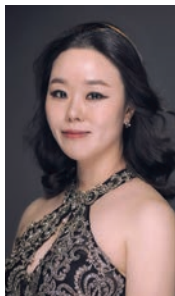
안드레아 노제다, 구스타보 두다멜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파바로티를 닮은 목소리'로 호평받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 본 극장에서 전속가수로 활동한 황수미는 2021년 제14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박하나는 202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체부장관상,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Great Lakes Region 우승, 코벳 오페라 콩쿠르 1위, 국제가곡콩쿠르 대상 및 청중상 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시즌 단원제로 지역 예술인 참여

이 밖에도 마르첼로 역의 문정현·김종표, 쇼나르 역의 한정현·유용준, 콜리네 역의 박순기·권영기 등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 무대를 빛내며, 지휘는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진현, 연출은 엄숙정이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출된 지역 예술인들이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의 시즌 단원으로 작품에 참여하면서 오페라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힘을 보탠다.

한편, 10월 29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2022 부산 오페라시즌' 마지막 작품으로, 영화의전당이 제작한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선보인다. 작곡가 베르디의 걸작 중의 하나로, 파리 화류계의 동백꽃 여인 비올레타와 귀족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소프라노 박현진



바리톤 한정현



바리톤 유용준



베이스 박순기



베이스 권영기



베이스 여지훈



테너 이창원



● Issue



BUSAN BIENNALE 2022

9월 3일(토)-11월 6일(토)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항 제1부두, 영도, 초량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051-503-6111, www.busanbiennale.org

물결 위에 서 있는 우리,

공존의 미래를 모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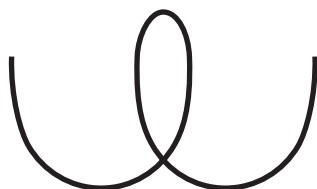
세계적 규모의 격년제 통합미술제인 2022 부산비엔날레가 9월 3일 화려한 개막을 시작으로 석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출범 21년째를 맞는 부산비엔날레는 지난 1981년 부산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를 시작으로, 1987년 시작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 첫발을 내딛은 부산야외조각대전을 통합,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로 개최되어 오다 지난 2002년부터 부산비엔날레라는 명칭으로 현재까지 격년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2022 부산비엔날레의 전시 주제는 '물결 위 우리(We, on the Rising Wave)'. 여기서 '물결'은 오랜 세월 부산으로 유입되고 밀려났던 사람들, 요동치는 역사에 대한 표현이자, 세계와의 상호 연결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 환경에서 전파에 대한 은유이자 해안 언덕으로 이루어진 굴곡진 부산의 지형을 함축하기도 한다. 따라서 '물결 위'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지형과 역사 위에서 각 개인의 몸이 그 환경과 긴밀히 엮여 있음을 드러내며, 유동하는 땅을 딛고 미래를 조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번 전시는 이주, 노동과 여성, 도시 생태계, 기술 변화와 공간성을 중심으로 삼아 부산의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참조하고 이에 연결되는 다들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감독으로는 지난 2017년부터 아트선재센터 부관장으로 재직 중인 김해주 씨가 선정됐다. 지난 2006년 부산비엔날레 준비과정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한 인연이 있는 그는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이후 국립극단,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전시기획을 맡으며 현대미술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전시 경력을 쌓았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전 지구적 '물결'의 관점을 논하는 주제에 걸맞게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를 비롯해 아프리카와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 26개국 64 작가/팀(80명)이 참여한다. 1930년대 생부터 1990년대 생까지 다양한 세대가

2022
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2
물결 위 우리
WE, ON THE
RISING
WAVE





- 1 오웬 라이언, A Sod State 1, 2021
- 2 오토봉 앵강가, Lined with shivers sprouting from the rock, 2021
- 3 김성환, Hair is a piece of head 머리는 머리의 부분, 2021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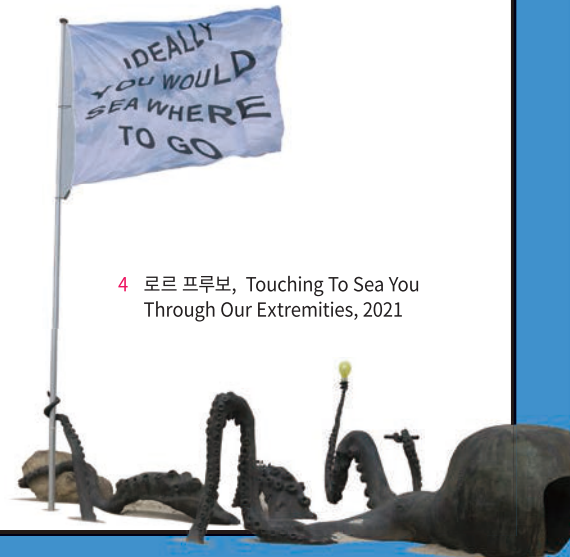
3

참여하며, 회화에서부터 영상, 영상설치, 조각, 퍼포먼스,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조합으로 전시의 다채로움을 더한다. 참여작가들은 전시 주제 아래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와 도시 구조의 변천 속에 새겨진 이야기를 돌아보고 전 지구적 현실과 연결하는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

한국계 네덜란드인 장세진(사라 반 데어 헤이드) 작가는 젠더, 인종, 국가주의 등 우리의 사고와 질서를 구축하는 체계를 드러내고, 이에 개입하여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아르헨티나 출생의 미카 로텐버그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을 현실과 상상력에 기반한 '초현실적 사회'를 통해 유머스럽고 풍자적으로 꼬집는다. 지난 4월 한국의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로르 프루보는 현실과 상상의 서사가 한데 섞이는 유동적인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또, 오웬 라이언은 권터 그라스의 '양철북'에서 영감을 얻은 영상설치를, 프란치스코 가마초 예레라는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고무 재배와 착취의 역사를 부산과 연결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드로잉과 사진,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문학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오토봉 앵강가는 이번 부산비엔날레에서 설치 작품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2022)에 출품 중인 이미래 작가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 중인 이미래는 기계 장치와 비계 등 산업적이고 기술적인 물질들이 가진 즉물성과 운동성을 탐구하며 실험적인 미학을 추구한다. 이밖에 현재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남, 니나 바이어+밥 길, 남화연, 김성환 등 약 70여 명의 작가가 오는 9월 부산을 직접 방문한다.

이번 비엔날레의 전시장소 또한 특별하다. 부산비엔날레의 주 전시관인 현대미술관은 물론 이번 전시 주제의 흐름과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항 제1부두와 영도, 초량 등 부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로 선정됐다. 부산항 제1부두는 부산을 외부세계에 연결하는 관문이자 이주의 통로로, 근대도시 부산의 출발점이다.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애환이 깃든 영도는 피난민과 실항민의 집이자 깡깡이 아지매들과 출항 해녀들의 일터로, 이주와 노동의 섬이기도 하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영도 동삼동에 위치한 폐공장 건물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며, 전시장 한 켠에서는 전시의 주제와 맞닿은 미술 영상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야외극장을 운영한다. 또한, 산과 언덕 위에 빼곡히 자리잡은 부산의 거주지 풍경은 부산의 도시 발전과 사람들의 이주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산복도로나 품고 있는 부산의 오랜 이야기들은 초량에 마련된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전시기간 동안에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관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우선 주말과 공휴일에는 부산항 제1부두에서 영도와 초량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또한, 부산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부산시티투어의 그린라인(부산역↔태종대)에 영도의 전시장 정류소를 신설하며, 10월 개통되는 서부산 코스에는 메인 전시장인 부산현대미술관을 경유하게 된다.



4 로르 프루보, Touching To Sea You Through Our Extremities, 2021

부산, ‘국악 창작음악의 메카’로서의 발걸음을 떼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 이정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지난 8월 19일에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재)부산문화회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열린 이번 연주회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먼저, ARKO한국창작음악제(아창제)는 우리나라의 국악, 양악 부문을 망라한 창작 관현악 작곡과 발표,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특성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혁신적인 창작력과 개척정신이 반영된 참신한 작품들을 발굴하여 한국의 창작관현악의 산실 역할을 해오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음악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아창제’는 매년 공모와 심사를 통해 국악과 양악 부문 관현악 작품을 선정하여,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특별연주회로 개최되었다. 그동안 아창제에서 선정된 다채로운 작품들 중 총 5곡의 국악부문 관현악 작품을 엄선하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통해 지역시민들과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작품은 유민희 작곡의 <마음의 전쟁>(제5회 선정작)으로 현재의 감정, 기쁨과 슬픔 등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마음의 전쟁’에 빗대어 표현한 곡이다. 작곡가의 뛰어난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력을 기반으로 잘 짜인 설계도와 같았다. 어린 나이에 이미 초창기 아창제에 선정된 작품이기에 작곡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유민희 작곡가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

Review



을 표현했었지만, 충분히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으며, 더욱 많은 성장을 한 유민희 작곡가의 곡들이 앞으로 더 많이 연주될 것이라 생각된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참신함까지 갖춘 작곡가이기에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두 번째는 김현섭 작곡의 '향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 임 <학을 탄 선인>(제9회 선정작)'이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천장에 그려진 학을 타고 있는 선인의 오묘한 미소와 꼭 닮은 향비파의 신비로움을 담은 곡으로 비파 연주자 마롱의 협연으로 들려주었다. 삼국시대부터 궁중에서 쓰인 향악기이지만 근래에는 연주자도 많지 않아 자주 접하기 힘든 악기인 향비파의 특별한 음색은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 냈다. 마치 고구려 고분 안에서 벽화를 바라보는 듯한 상상을 하게 하였다.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 김현섭의 '끼'와 '재능'에 주목할 만했다.

세 번째로 연주된 이재준 작곡의 '25현 가야금 이중협주곡 <별뫼별>(제12회 선정작)'은 타오르는 별의 모습과 그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모습을 다양한 국악기법으로 표현한 곡으로 두 대의 가야금이 우주를 품은 듯 연주 주법을 다채롭게 표현하며 연주되었다. 차세대 작곡가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준 작곡가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작품 전체를 수놓아 자신의 역량을 한껏 뽐내었다. 더불어 이 곡의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 김보경, 박소희 가야금연주자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곡에 대한 연주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해석력을 보여주었다. 젊은 예술가들의 훌륭한 기량들이 흐뭇한 연주였다.

네 번째는 이예진 작곡의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기우>(제11회 선정작)'. 이 곡은 협연자에게는 기우제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고, 관현악의 각 악기들로 비가 내리기 전의 자연현상을 음향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윽고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관, 현, 타악기들이 타악적 주법을 총동원하여 빗소리를 묘사하여 비가 내리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었는데 협연자와 관현악 배치에 따라 무대 위에서 각 악기들의 공간적 음향 활용이 인상 깊었다. 또한 협연자 타악기의 특수주법과 다양한 채(stick)의 활용을 통해 '대고'와 '공'이 가진 다양한

소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협연자로 나선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인수 협연자는 이 모든 것들을 훌륭히 소화해 내어 작곡가의 깊이 있는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기우>라는 작품을 통해 이예진 작곡가는 관현악의 음향적 활용이 또 하나의 효과적인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임을 보여주었고, 국악관현악 작품의 스펙트럼을 크게 넓혔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이며 이번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곡은 이정호 작곡의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제9회 선정작)'이다. 이 곡은 라틴어로 된 가톨릭 미사의 합창 가사와 진도씻김굿 길닥음 중 여러 소리를 차용하여 가톨릭, 불교 등 '종교를 뛰어넘어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다. 이는 곧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것이기에, 궁극적 의미는 산 자를 위한 '위로의 토닥임' 같은 것이다. 곡은 크게 3구간으로 '1. 어둠의 지배자에게 몸을 빼앗기는 장면', '2. 낯을 위로하는 의식', '3.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모두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에는 관록 있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정윤형(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 두 소리꾼이 협연무대를 채웠다. 웅장한 합창에 내공 있는 두 소리꾼의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었으며, 김종욱 수석지휘자의 멋진 해석력과 국악관현악단 단원분들의 꼼꼼한 연주로 그 바탕을 훌륭히 채색하였다.

이번 공연이 특히 반갑고 발전적이라고 생각 드는 이유는 전국의 국악관현악 지휘자와 평론가, 작곡가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도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창작국악관현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는 '아창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선정된 작품들이 충분히 재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그 작품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 좋은 작곡가를 발굴하고, 국악관현악의 연주력을 높이며, 국악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곳 부산에서도 많은 창작국악축제들이 생겨나고 자리 잡는다면 '국악창작음악의 메카'로 부산의 위상이 한껏 올라갈 것이라 믿는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 : 라이프 앤 조이

일 시 | 7월 9일(토)-10월 30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문 의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행복의 화가(A painter of bonheur)'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첫 부산전시.

국내 최대 규모의 마티스 회고전으로, 2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 판화, 일러스트, 아트북 등 그가

남긴 방대한 원화 작품을 통해 '아수파'로 알려진 마티스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니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마티스 고향 평원의 바람 소리를 현지 울로케이션으로 촬영하여 담아낸 영상과 뮤지션 정재형의 음악, 그리고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티스의 예술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담아낸다.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III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

일 시 |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세 번째 무대.

영 아티스트 부문과 아티스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무대로, 지휘자

최영선이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진행된다. 영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피아니스트 이수완, 플루티스트 이재영, 더블베이스리스트 유시현, 트럼페터 김준영,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플루티스트 릿슈, 바이올리니스트 김가원, 피아니스트 이재현, 바수니스트 안석진이 출연,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제11회 작곡동인 세움 정기연주회
음악의 맥박II(세계의 리듬과 선율)

일 시 | 9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작곡동인 세움 010-3338-1906



'Study&Explore Unified Music'이라는 슬로건 아래 클래식 음악과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교류하며 음악적 활동과 사고를 더욱 확장시키고자 결성한 작곡동인 세움의 무대.

이번 무대는 작곡동인 세움의 대표 진소영을 비롯해 권태우, 조혜선, 김은진, 차성은, 최예린, 홍수민, 배성민 등 8인의 작곡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음악적 어법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테마로 창작한 무대로, 타악기 연주자와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타악기의 확장된 음악적 연구를 통해 얻은 창의적이고 아카데믹한 다양한 실내악 곡을 들려준다. 더불어 제1회 작곡동인 세움 작품 공모(플루트 솔로 작품) 시상식과 함께 우승한 신동선 작곡가의 곡도 연주된다.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

프랑스의 촉망받는 지휘자 아드리앵 페뤼송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이명주가 협연자로 출연, 프랑스를 대표하는 라벨과 드뷔시의 작품을 통해 인상주의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라벨/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바버/녹스빌:1915년의 여름 [한국 초연]
라벨/바다 위의 작은 배 [한국 초연]
드뷔시/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W.C.W.S IV 레이첸&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클래식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레이첸과 선우예권, 두 젊은 거장을 만날 수 있는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W.C.W.S) 네 번째 무대.

레이첸은 2008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 이어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지난 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는 등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13
폴랑크/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19 등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러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20세기 모더니즘 음악의 개척자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Titan)'을 들려준다. 제목인 '거인'은 당시 말러가 심취해있던 독일의 낭만파 작가 장 파울의 시 '거인'에서 가져왔지만 제목과는 달리 젊은이의 고뇌를 담고 있으며,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을 사용하면서도 낭만적 서정성을 잃지 않고 있다.
•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VI 부산청년오케스트라

일 시 |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페루 국립 음악대학, Universidad de Ciencias Aplicadas, 국립 산 아구스틴대학 교수로 있는 지휘자 파블로 사바트가 지휘하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여섯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스 조지 아디스의 협연으로 에르네스토 로페즈 민드루의 'Marinera y Tondero'를 비롯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작품 15',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K.216'을 들려준다.

지난 2020년 창단한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사)부산음악협회가 지역 출신의 우수한 청년음악가들을 발굴, 결성한 단체이다.

듀오지음 창단연주회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수년간 왕성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동아대학교 교수), 권준(고신대학교 교수)으로 결성된 듀오지음 창단무대.

이들은 이미 2018년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을 통해 환상적인 호흡과 연주력으로 피아노 듀오 앙상블의 깊은 매력을 보여주며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듀오지음은 이번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스무개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매력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폭넓은 예술적 경험을 청중과 함께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멘델스존/안단테와 변주곡 작품 83a
 안톤 루빈스타인/소나타 라장조 작품 89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스페셜 콘서트 스쿨콘서트

일 시 | 9월 7일 **수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2006년 전국시도 교육청 최초로 창단된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부산교문 청소년오케스트라 무대로 펼쳐지는 '스쿨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스 출신의 알토 색소폰리스트 디오니시스 루소, 바이올리니스트 아니스 조지 아디스, 피아니스트 네펠리 무소리가 협연을 맡아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마누엘 데 파야 '7개의 스페인 민요 모음곡' 중 '호타(Jota)', 이투랄데 '페체나 차르다', 그리고 '페르퀀트 모음곡' 중 제1번과 제2번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부산지역의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교문오케스트라는 평소 우수한 강사진과 함께 파트별 연습과 합주 연습을 진행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앙상블 자비에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앙상블 자비에 010-4006-0059



서울대학교 김다미 교수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유효정, 비올리스트 김규, 홍진선, 첼리스트 김민승, 이호찬 등 미국 줄리어드 음대 및 뉴잉글랜드음악원 동문으로 결성된 앙상블 자비에의 무대.

앙상블 자비에에는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공연 수익금 전액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부하며 음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크 쉐머, 카사도의 첼로 솔로와 멘델스존 현악4중주 제4번, 드보르작 현악 5중주 등 평소 자주 연주되지 않는 명곡들을 시민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 바이올린/김다미, 유효정
- 비올라/김규, 홍진선
- 첼로/김민승, 이호찬

소프라노 정혜리 독창회

일 시 | 9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문화윤곽 010-9281-2662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및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전문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소프라노 정혜리 독창회.

정혜리는 그동안 오페라 '춘향전',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카르멘',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주역 및 독창회,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토스티/작은 입술, 바램
 로시니/아라곤 여인
 에바 델라쿠어/빌라벨(전원시)
 김호근/가장 아름다운 노래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흘리는 눈물' 등 수곡
 • 해설/김성민 • 반주/최승희
 • 테너/장지현 • 바이올린/김지윤

피아니스트 금찬이의 환타지 음악이야기 요정 뮤즈의 춤추는 숲

일 시 | 9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산파기획 010-8503-0000



고신대학교 음악과 객원 교수이자 울산대학교 음악과 겸임교수로 있으며, 21c음악교수법연구회 회장, 한국피아노학회 이사 및 교재개발연구 수석위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금찬이 리사이틀.

신라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세종대학교 피아노교수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금찬이는 그동안 중국텐진국립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국립오케스트라,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의 낭만 작곡가인 코넬리어스 걸리트라(1820~1901)의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격 작품을 소개하고 창작 그림동화 '요정 뮤즈의 춤추는 숲(글 금찬이, 그림 임수정)'을 다양한 선율적 감성과 함께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일 시 | 9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차세대 연주자들이 부산을 찾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2022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첼로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첼리스트 최하영과 그의 뒤를 이어 2위 입상한 첼리스트 이바이 첸이 함께 하는 무대로, 상임지휘자 서희태가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와 브루흐, 드보르작의 작품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연계특강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방 스 로사리오 경당의 탄생

일 시 | 9월 14일 수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를 한층 더 깊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전시 연계특강. 이번 특강에서는 노년의 앙리 마티스가 완성해 낸 역작이자 그 예술의 정수인 방스 로사리오 경당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의 세계와 그의 시대, 근현대 미술에서 종교의 의미를 돌아본다. 마인트포스트 편집부장 및 바티칸 뉴스 편집자인 가비노 김이 강사로 출연, 방스 로사리오 경당 축조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각 작업의 의미를 마티스의 전 예술과 종교의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경당 축조에 관여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과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제9회 해원정기연주회 Mainstream

일 시 |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해원초등학교 740-9902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창의력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 4C를 함양하기 위한 ABM(AI, Bigdata, Metaverse) 기반 MIE융합교육과정 시범학교로 선정된 해원초등학교가 첫발을 내딛은 MIE융합예술교육과정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한 무대. 매년 열어온 정기연주회를 겸한 이번 무대에서는 Interactive Art 예술동아리,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예술동아리, 순수음악예술동아리(오케스트라 및 합창) 등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돌아보는 발표 무대도 갖는다. 특히 특유의 무대 매너와 음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멀티 성악가 류정필이 출연, 학생들에게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일 시 |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합창지휘계를 이끌어갈 신진지휘자의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의 등용문이 될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임희준과 함께 유럽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 김진영이 1, 2부로 나뉘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현대음악 작곡가의 합창곡을 소개한다. 지휘자 임희준은 지난 2018년도에 열린 유럽연합 지휘 콩쿠르 본선에 진출했으며, Pärnu City Orchestra 단원들이 선정한 최고 지휘자상을 수상했다. 지휘자 김진영은 2013년 Gala der jungen Stimmen의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예술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했다.

- 첼로/박건우

유주영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9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유주영 010-6630-5535



현재 부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오케스트라, 부산 콘서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트 파르텍 클라, 플루트 앙상블 비엔토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유주영 독주회.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프 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유주영은 2009년 귀국 후 부산음협 주최 신인음악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7차례 독주회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 체임버 오케스트라, 동래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100인의 그랜드 플루트, 금정수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 피아노/성민주 • 바이올린/우소라
- 비올라/윤솔샘 • 첼로/우리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매직컬 환경 퍼포먼스 에코백

일 시 | 9월 15일(목)-10월 9일(일) 평일 오전11:00 (단체관람),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환경지킴이 에코와 그린, 박스맥과 함께 떠나는 환경 여행 '에코백'. 이번 무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지구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로, '깨끗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공연과 전시가 결합된 무대이다. 특히 편리함의 대명사 스마트폰, 택배 등에서 시작하여 해양오염, 기후변화, 탄소 중립까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지를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

향사회 창작음악 페스티벌

일 시 | 9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1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향사회 010-4550-1299



한강 이남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창작음악단체 향사회의 창작음악 페스티벌. 향사회는 부산의 첫 전문 음악교육기관인 부산사범대학(현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수였던 고 이상근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결성한 작곡가그룹으로, 지난 1974년 첫 발을 내딛은 후 그동안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창작음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이상근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로, 이상근 선생의 대표작과 더불어 제자들의 추모작품으로 꾸며진다.

16일 향사회 제59회 작곡발표회
‘Continue Generation’
작곡가 김정권, 장은영, 박명향, 배진의, 홍윤경,

김수진, 박정미, 이규봉 등 8인의 작곡가의 창작곡으로 꾸며지는 향사회의 59번째 작곡발표회.
프로그램

- 김정권/Variations on ‘My Fatherland’ for Two Pianos
- 장은영/After-image
- 박명향/앨토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Excuse me, you are on fire(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 배진의/변모된 공간
- 홍윤경/childhood
- 김수진/햇빛/바람(윤동주 시)
- 박정미/현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어우러짐’
- 이규봉/악흥의 순간 VI(2022)

17일 이상근 탄생 백주년 기념음악회
가곡과 합창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빼어난 작품을 남긴 20세기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상근(1922-2000)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무대.

- 연주/부산신포니에타
- 소프라노/정혜민
- 피아노/김미성, 손선경, 임상우, 조재은
- 색소폰/김대훈 • 플루트/강미경
- 바이올린/김재원, 박서영
- 비올라/박정은 • 첼로/윤주연

2022 이주형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9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네이버 예약)
문의 | 음악실험실 짜임 010-2032-2211



따뜻한 감성과 다채로운 음색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플루트 부수석 주자로 활동 중인 이주형의 독주회. 인제대학교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이주형은 그동안 국내외 우수

콩쿠르를 비롯해 금호영아티스트 연주자로 선정되어 그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 폰 파라디스의 ‘시실리아느’, 요아힘 안데르센의 ‘6개의 살롱소품곡’, 플루트 음악 중 난곡으로 손꼽히는 로웰 리버만의 ‘소나타’, 그리고 특별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로 편곡하여 들려준다.

- 피아노/심정은

2022 김창완밴드 콘서트

일 시 | 9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6천원
문의 | 파이오니아(주) 1899-3725



올해로 데뷔 14주년을 맞은 김창완밴드의 2022년 첫 부산 콘서트. 김창완밴드는 ‘산울림’의 음악을 재현하고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지난 2008년 김창완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그동안 ‘Happiest’, ‘BUS’, ‘분홍굴 착가’ 등 정규 앨범을 비롯해 ‘Darn it’, ‘E 메이저를 치면’ 등의 EP를 발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한국 록신의 표본이 되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창문 너머 어렵듯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기타로 오 토바이 타자’, ‘아니 벌써’ 등 산울림의 노래와 산울림 해체 후 결성한 김창완밴드의 대표곡을 함께 들려준다. 특히 배우와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창완의 삶의 에피소드를 관객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는다.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2022 기획공연 콘체르토 페스티벌

일 시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사)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가 지역의 차세대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 다니엘S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주은, 김하늘, 이수정, 팀파니스트 최예나, 피아니스트 이소민, 송인수가 협연자로 출연, 부산신포니오케스트라와의 멋진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다니엘S김
- 바이올린/이주은, 김하늘, 이수정
- 팀파니/최예나
- 피아노/이소민, 송인수

곽문정 귀국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마트 010-2682-6971



현재 IF 플루트 앙상블, Flutes Ensemble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곽문정 귀국 리사이틀. 인제대학교 석사과정 수료 후 도미, 신시내티 음대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곽문정은 유학 중 Central Ohio Flute

Association Young Artist Competition에서 2위를 차지하여 다음해 콩쿠르 우승자 공개마스터 클래스에서 연주한 바 있다.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전문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후학 양성에도 힘써나갈 예정인 곽문정은 이번 무대에서 도니제티, 로버트 딕, 도플러, 게리 쇼커, 생상스, 로웰 리버만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 플루트/오선정
- 피아노/김은정

제55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광휘롭고 아름다운...**

일 시 |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부산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6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무대.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기연주회를 비롯 초청연주회, 문화소의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꾸준히 무대에 서왔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부산피아노트리오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권준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17번', 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일 시 | 9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음악가들과 함께 마련하는 실내악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정명훈과 함께 현재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라히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을 역임한 김사라,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 독보적인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지 등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이 앙상블 멤버로 참여,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 4중주 제3번 다단조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 '송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일 시 |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전통음악의 계승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품격있는 전통음악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하는 '전통음악의 밤'. 특히 이번 무대는 전통의 바탕 위에 오늘날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무대이다.

프로그램
 관악합주 '함령지곡', 현악 취타 '수요남곡', 피리 독주 '자진한잎(염양춘)', 단소·양금 병주 '현천수', 대금산조 '원장현류', 남도민요 '육자배기', 경기도당굿
 • 집박/송강수 • 피리/김우우
 • 단소/조은경 • 양금/장미진
 • 대금/한영길 • 민요/박성희, 정선희

부산청년작곡가모임 제1회 작품 발표회

일 시 | 9월 20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청년작곡가모임 010-8715-1399



부산의 젊은 작곡가들로 구성된 부산청년작곡가모임의 첫 작품 발표회. 부산청년작곡가모임과 음악실험실 자임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무대는 김규리, 김나희, 김우진, 김지현, 노재봉, 배성운, 안은강, 이상윤 등 신진 작곡가들의 곡과 더불어 초청작곡가 황선영의 곡을 들려준다.

특히 클라리넷, 색소폰, 피아노로 구성된 연주단체 '양상'을 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작곡된 초연곡들로, 부산청년작곡가들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
 • 작곡/김규리, 김나희, 김우진, 김지현, 노재봉, 배성운, 안은강, 이상윤
 • 초청 작곡가/황선영
 • 초청 연주단체/양상블 누

(재)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특강 **전원경의 아트살롱(그림콘서트) 가을, 고독한 뉴욕키**

일 시 | 9월 21일 수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강연(Lecture)과 공연(Concert)이 결합된 그림 콘서트로, 미술과 음악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원경의 아트살롱'. 계절별로 세계의 다양한 도시로 예술여행을 떠나는 '아트살롱'은 특히 도시의 예술문화와 작품이 탄생한 배경,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미술작품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 교수이자 예술전문 작가인 전원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가을 고독한 뉴욕키'라는 테마로 미국 뉴욕의 가을을 미술작품과 연주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심포니아역**

일 시 |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1회 정기연주회의 메인 프로그램인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을 음악칼럼니스트 황정원의 해설로 미리 만날 수 있는 '심포니아역'. '심포니아역'은 연주 시작 전 음악칼럼니스트로부터 연주곡에 대한 에피소드와 해설을 통해 작품을 더욱 깊이 감상할 수 있어 음악학도와 클래식 매니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이자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황정원 칼럼니스트가 해설을 맡아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에 대한 곡의 이해를 돕는다.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해설/황정원(음악칼럼니스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일 시 |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정통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킨 프로코피에프의 대표곡으로 꾸며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5년 부조니 국제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인 문지영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

- 프로코피에프/피아노 협주곡 제3번
- 프로코피에프/교향곡 제5번
- 지휘/최수열(예술감독)
- 피아노/문지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연극 그때도 오늘

일 시 |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만 13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역사 속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연극 '그때도 오늘'. 서로 다른 4개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을 풀어내는 에피소드 형식의 2인극으로, 일제 침략기인 1920년대를 시작으로 1940년대 제주도, 1980년대 부산, 2020년대 최전방 등 한국 근현대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독립 또는 평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꿨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통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우리 역사를 다채롭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 작/오인하 • 연출/민준호
- 출연/오의식, 김설진, 이희준, 이시연

하지원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하지원 010-4577-6001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하지원 독주회.

부산대학교를 수석졸업하고 도미, 뉴욕주립대 석사 및 Artist Diploma,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하지원은 국내 주요 콩쿠르 우승 및 제7회 뉴욕아티스트 국제콩쿠르 3위, 펜실베이니아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 2015 American Protege 국제콩쿠르 2위 입상했으며, 뉴욕에서의 독주회를 통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토라제로부터 '정확한 악보 분석이 기반된 탄탄한 해설을 가진 연주'라는 극찬을 받았다.

프로그램

- 슈만/환상소곡집 작품 12
- 슈만/판타지 다장조 작품 17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일 시 | 9월 24일~25일 토·일요일 오후 1:00,
 5: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부산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출연,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들려주는 드림프로젝트.

출연

- 강서청소년오케스트라,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사상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이안오케스트라, 인어스탠덤오케스트라, 가동윤슬오케스트라, 구덕초등학교오케스트라, 대연한소리오케스트라, 두실수피아오케스트라, 명륜초등학교오케스트라, 명원T.O.P.오케스트라, 민락with오케스트라, 배산하모니오케스트라, 부산교육대학교부설 초등학교관현악단, 분포가운오케스트라, 양보사인하모니오케스트라, 오륙도드림오케스트라, 옥샘하모니오케스트라, 초음초등학교오케스트라, 해원오케스트라, 거제중학교금비오케스트라, 동향오케스트라, 진영중학교오케스트라, 부산공업고등학교윈드오케스트라

2022 루체아르떼 기획공연 Amicitia Young Artist Concert

일 시 |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루체아르떼 010-9703-2605



청소년 연주자들에게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Amicitia Young Artist Concert.

'Amicitia'는 라틴어로 '우정'이라는 뜻으로, 청소년 연주자들이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의견을 서로 소통하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무대이다.

특히 다양한 연주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연주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미래의 음악인으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파티타 네 번째 기획공연 하비에르 하라 기타 리사이틀

일 시 | 9월 25일 일요일 오후 3:00 **챔버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주)케이아트엔컴퍼니
 02-3471-0017, 0507-1442-7042



탁월한 테크닉과 독창적인 음악성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GFA(Guitar Foundation of America International Concert Artist Competition)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세계 유수 콩쿠르를 석권한 기

타리스트 하비에르 하라의 첫 내한무대.

오늘날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부상한 하비에르 하라는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음악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2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풀러튼 캠퍼스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하비에르 하라는 지난 2017년 NAXOS 레이블에서 그의 첫 독주 음반을 발매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2회 정기연주회 Autumn greeting

일 시 | 9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010-9914-0292



지난 199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듀오, 트리오, 챔버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구성의 앙상블로 파워풀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연주로 주목받아 온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무대.

'from The Atlantic'이라는 연주 시리즈의 일환으로, 대서양 문화권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Autumn greeting'이라는 부제로, 구성의 아담함과 멜로디의 소박함이 특징인 브리튼의 '심플 교향곡'을 비롯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회복된 일상의 풍경을 상상하며 구상한 작곡가 방화연의 창작곡 '풍경의 온도'(세계 초연),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 니노 로타의 낭만적 서정이 담긴 '헌을 위한 협주곡'과 영화음악 OST를 들려준다.

베이스 문동환이 부르는 변훈가곡의밤

일 시 | 9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문동환 010-4628-3098



부산시립합창단 부수석으로 있는 베이스 문동환 리사이틀.

그동안 특색있는 우리 가곡을 발굴하는 한편, 향토적인 곡들을 즐겨 연주해왔던 문동환은 작곡가 한광희, 김종덕, 김성광 등 지역 작곡가들의 곡을 소개하면서 전라도, 경상도의 음악교류 발전에 촉매역할을 해왔다. 11회를 맞는 이번 독창회에서는 가곡 '명태', '귀천', '떠나가는 배'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 변훈 선생의 대표곡을 비롯해 평소 자주 연주되지 않은 곡들을 들려주며, 관객들과 함께 우리 가곡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 반주/박정호
- 우정출연/테너 김현식

작곡그룹 An-ti Stimmung 제22회 작품 발표회

일 시 | 9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작곡그룹 An-ti Stimmung 010-8212-0222



매년 새로운 주제의 창작곡을 통해 현대음악과 청중 사이의 소통을 시도해 온 작곡그룹 안티스티뮴(An-ti Stimmung)의 22번째 창작곡 발표회.

지난 2000년 창단된 후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는 작곡그룹 An-ti

Stimmung은 세계로 뻗어가는 현존하는 최고의 작곡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새로운 창조음악 세계를 연구하며 클래식 음악계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시대에도 매년 작곡발표회를 가져온 작곡그룹 An-ti Stimmung은 올해 '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현대무용단 '자유'와 함께 영상, 컴퓨터 음악, 실제연주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무대로 청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유도원 작곡발표회

일 시 | 9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현대문화기획 02-2266-130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작곡가 유도원 작곡발표회.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 석사,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석사,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유도원은 벨기에 세계현대음악제(2012 ISCM WORLD MUSIC DAYS) 당선, 일신작곡가상(일신문화재단)을 수상하고 2012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상임작곡가, 2018 서울시립교향악단 아르스노바 위촉작곡가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미술, 문학, 소음 혹은 자연현상 등과 같은 음악외적 소재의 음악화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펼쳐온 유도원은 이번 무대에서도 '음악외적 소재의 음악화'라는 접근방식으로 작곡한 작품들을 통해 현대음악에 대한 또 다른 심미적 경험을 선사한다.

2022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라 보엠

일 시 | 10월 1일-2일 토-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22 부산오페라시즌' 무대로, 푸치니의 낭만주의 오페라 '라 보엠'을 선보인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전속가수로 발탁되어 데뷔한 테너 정호윤,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으로부터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리릭테너'라는 호평을 받은 테너 권재희, 2014년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황수미,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즈로부터 호평받은 소프라노 박하나 등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함께 한다.

- 지휘/백진현
- 연출/엄숙정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연계특강 아트콘서트 마티스가 사랑한 음악

일 시 | 10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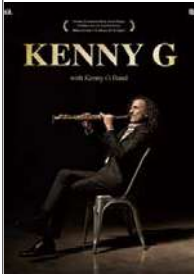


'원색의 미술사', '가위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등으로 불렸던 앙리 마티스는 야수파의 창시자로서 입체파의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전반의 혁신적 미술을 이끌었던 화가로, 새로운 회화의 길을 개척하면서도 음악에 깊은 관

심과 조예를 보였던 인물이다. 마티스는 스스로 바이올린을 즐겨 연주했고 자녀들에게도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음악을 소재로 한 작품을 풍성하게 남겼다. 미술평론가 장원익이 진행하는 이번 특강에서는 마티스가 사랑한 음악, 마티스에게 영감을 주었던 음악을 그의 작품과 함께 Moz-Art 앙상블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 감상해본다.

2022 케니 지 월드투어 내한공연

일 시 | 9월 15일 목요일 오후 4:00, 8: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문 의 | ㈜월드쇼마켓 1566-5490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뮤지션 케니 지 내한공연.

Loving You, Going Home, Songbird,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등 누구에게나 깊은 감동을 주는 소울뮤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니 지는 제36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연주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7,500만장의 음반을 판매하여 악기 연주자 중 가장 많은 판매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4년 만에 내한하는 케니 지는 이번 무대에서 로 맨틱하고 감미로운 컨셉의 음악과 무대를 선사한다.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5 감염된 도시의 비밀

일 시 |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1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1층석 6만6천원, 2층석 5만5천원
 (24개월이상 관람)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귀신이 나오는 장소로 유명한 신비아파트 444호에 이사를 오게 된 하리와 두리 남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동명의 판타지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신비아파트' 시즌 다섯 번째

무대. 이번 '감염된 도시의 비밀'에서는 저주의 불꽃에 너지 '잭오랜턴'과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은혼귀' 등 이전 시즌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귀신 캐릭터들이 등장해 더 강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부산시립극단 예술교육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일 시 | 9월 20일-23일 화-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부산시립극단이 중·고등학생들의 예술문화체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예술교육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특히 이번 무대는 관객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제작공연을 통해 부산시립극단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객층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중고생들을 위한 성장드라마 '소년 B가 사는 집'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는 이보람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한 소년과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냉담한 시선을 그리고 있다.

- 작/이보람
- 객원연출/최용혁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프롬나드콘서트VI 지브리음악대축전

일 시 | 9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만원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마지막 무대.

2021 한국 예술 비평가 협회 베스트 음악가상을 수상한 지휘자 박지훈이 지휘하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김의 협연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주요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주는 '지브리 음악대축전'으로 꾸며진다. 협연자 크리스티안 김은 '우리 시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비르투오소 중 하나'로, 현재 세종솔로이스츠, 서울비르투오지, 유니버설뮤직 소속 앙상블인 Symphoniacs 단원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명성황후

일 시 | 9월 28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좌석제,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연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9월 상영회에서는 지난 1995년 초연 이래 '대한민국 대표 창작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 '명성황후'의 25주년 기념공연을 만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이 더해진 뮤지컬 '명성황후'는 조선왕조 26대 고종의 왕후로서 비극적이었던 삶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에서부터 격변의 시대에 주변 열강들에 맞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던 여성 정치가로서의 고뇌를 담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일 시 | 9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전 10:00
 (학생 단체관람),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만 3세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부산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발레단 중 하나인 김옥련발레단을 초청해 마련한 무대로, 김옥련발레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동화로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을 선보인다.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영미문학의 대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동화를 발레무대로 제작한 '거인의 정원'은 발레뿐만 아니라 극적 효과를 위해 배우가 출연하여 몸짓과 대사를 사용하고, 타장르와의 융합과 협업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사한다.

음악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꿈의 이야기 Dreaming and Dreaming

일 시 | 8월 30일(화)~9월 29일(목)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區 문화회관 외 부산 전역
문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 축제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주요 일정

메인콘서트V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9월 2일(금)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자 로드리고 마시아스가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아시 마타티아스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프롬나드콘서트II 'GM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9월 3일(토)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지휘자 금난새와 부산, 경남지역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GMC 필하모닉이 마련하는 프롬나드 콘서트 두 번째 무대.

GMC 필하모닉은 부산의 금난새 뮤직센터를 거점으로, 신생 오케스트라다운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청중들과 만나고 있다.

프롬나드콘서트III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9월 6일(화)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와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의 무대로 꾸며지는 프롬나드 콘서트 세 번째 무대.



프롬나드콘서트IV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9월 7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프롬나드 콘서트 네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셸리페르,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첼리스트 박성근과 함께 베토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품 56', 브리튼 '단순교향곡'을 들려준다.

부산음악인시리즈I '음악영재'

9월 15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차세대 연주자에서부터 중견음악인까지 지역 음악인들의 열정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부산음악인시리즈 첫 번째 무대.

황예빈(바이올린), 이채윤(피아노), 김가윤(바이올린), 문세은(피아노), 박세현(소프라노), 이제민(첼로), 강람이(피아노), 명정현(바이올린), Amitié Trio 등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음악영재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부산음악인시리즈II '라이징스타'

9월 16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천해지(피아노), 조강현(첼로), 호연주(피아노), 김준영(트럼펫), 윤서하(피아노), 이영은(피아노), 김준석(바리톤), 이현지(피아노) 등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프롬나드콘서트V '볼케이노 빅밴드'

9월 21일(수)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2008년, 틀에 박힌 클래식 공연에서 벗어나 클래식의 대중화와 재즈의 보급화를 위해 창단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한국 최고의 재즈 빅밴드'라는 찬사를 받은 볼케이노 빅밴드의 무대.



부산음악인시리즈III '부산음악인'

9월 26일(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양상블 Q, 블루엔 콰르텟, 위드 플루트 앙상블, 박지은(피아노), 스플렌데라, 앙상블 아티레, 강한솔(피아노), 서보람&장서희(Piano Duo)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음악인과 실내악팀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앙상블콘서트I 'BMIMF String Ensemble'

9월 27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올해 새롭게 창단한 페스티벌 앙상블 단체인 BMIMF스트링앙상블의 무대.

- 바이올린/이현우, 박완서, 백나현, 권순지
- 비올라/조우태, 황영은
- 첼로/조명환, 배원

앙상블콘서트II 'BMIMF Brass Ensemble'

9월 29(목)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창단된 또다른 페스티벌 앙상블 단체인 BMIMF브라스앙상블의 무대로, 축제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웅장한 관악 무대를 선사한다.

- 트럼펫/엄승규, 조규형
- 호른/박용인 • 트롬본/최태근
- 튜바/문지웅 • 피아노/네펠리 무소라

제41회 짜장콘서트
스토리텔링 콘서트

어른을 위한 동화: 수레바퀴 앞에서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3:3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 선착순 50명)
문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콘서트 보고 짜장면 먹는다' 제41회 짜장콘서트. '짜장 콘서트'는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강병열)이 지난 2019년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는 특별한 무대로, 이번 9월 무대에서는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이 자연(四季)의 순환에 따라 이루어지고, 누구도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음악과 이야기의 결합을 통해 선보인다. 테너 양승엽, 소프라노 김민성, 왕기현, 바리톤 시영민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누구나 아는 동요 및 가곡, 민요, 가요 등 다채로운 곡이 연주된다.

- 피아노/박정현 • 내레이터/신하람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과 함께 하는
바로크 음악 여행 시리즈
베르사유가 사랑한 음악

일 시 | 9월 4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010-7573-8320



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통 합창곡을 연주해온 성악 솔리스트 앙상블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의 바로크 음악 여행 시리즈 첫 번째 무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크 전문 연주단체인 카메라타 안티파와 서울의 연주로, 프랑스의 '코메디 발레'와 '서정 비극'을 완성한 17세기 프랑스 음악의 거장 장 바티스타 륄리의 작품을 들려준다.

- 지휘/이성훈 • 해설/조희창
- 카운터테너/정민호 • 바로크바이올린/김지영
- 하프시코드/아렌트 흐로스펠트
- 테오르보/윤현중 • 오르간/권선경, 이효진

스페이스옴 9월 옴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9일, 16일 공연없음) 스페이스옴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옴 557-3369



2일(제470회) 김지은 바이올린 리사이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은 독주회.

김지은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12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최우수상, 2013 제2회 세종시 전국 초·중·고 음악경연대회 최우수상, 2017 제41회 가야문화축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우량, 2018 음악교육신문사 부산지사 콩쿠르 3위, 2019 제25회 한국음악교육협회콩쿠르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 피아노/성아람

23일(제471회) 아디오스 피아졸라

숨니움 앙상블 리더, 숨블리 트리오, 앙상블 NOUS, 앙상블Tune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혜경, 플루트 사중주 '클랑', 앙상블 라이덴 샤프트, 부산현대음악앙상블, 앙상블 튠 단원,

United Korean Orchestra 수석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장예지, United Korean Orchestra 수석, IPB, 윈더첼로, 앙상블 튠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변은석의 앙상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전곡과 리베르탱고, 아베마리아, '탱고의 역사' 중 '카페1930' 등 피아졸라의 대표곡으로 꾸며진다.



30일(제472회) 가을, 기다림...

동서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성악가협회 회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김민성, 부산성악가협회, 독일가곡연구회,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아모로제 성악연구회 회원, 부산법원 행복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소프라노 장은영이 들려주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 피아노/최동욱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비올리스트 서수민 듀오콘서트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비디엠엔터테인먼트 02-6951-5801



한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비올리스트 서수민 등 두 테크니션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로부터 특별한 재능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찬사를 받은 오주영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신단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카타르 필하모닉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찍이 남다른 재주와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은 서수민은 현재 코리어나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PACE 앙상블 멤버로 활동하며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호프마이스터, 모차르트, 마르티누, 슈만, 피아졸라, 쇼스타코비치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멋진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 피아노/김준현

제51회 부산작곡가협회 창작곡 발표회 합창과 실내악으로 다시, 손을 건넌다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작곡가협회 사무국장 이승은
010-4099-2229



지난 1983년 창립 이래 부산 지역의 창작 음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작곡가협회(회장 정수란) 창작곡 발표회.

올해 부산문화재단 우수 예술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합창과 실내악으로 다시, 손을 건넌다'는 아직도 계속되는 팬데믹 여파에서도 '다시, 함께, 시작하자'라는 의지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16인의 작곡가가 힘들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당면한 현재를 직시하며 또한, 다가올 미래의 부산 창작 음악계에 대한 고민의 여정을 청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만든 무대이다.

2022 을숙도 예술공감

일 시 | 9월 6일(화), 27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홈페이지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을숙도 문화회관 기획공연 '을숙도 예술공감'

6일(제18회) 움직이는 글 '실내악으로 만나는 문학 작품'

소설, 희곡, 시 등이 바탕이 된 명곡을 통해 문학 작품들의 숨겨진 사랑, 열정, 감성, 판타지 등의 이야기를 TDC앙상블의 연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

TDC앙상블은 독일, 러시아, 이태리 등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부산 출신의 연주자들로, 지난 2011년 창단 후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프로그램

그리그/페르귤트 모음곡 제1번 작품 46
구노/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등 수곡

27일(제19회) 나눔플루트앙상블 'Contemporary' 국내 유일의 현대 플루트앙상블 연주팀으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신선한 무대연출로 관객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연을 선보이는 나눔플루트앙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피콜로, 콘서트 플루트, 알토 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등 다양한 플루트의 편성과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플루트 앙상블만의 차별화된 음악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Good morning!, Capricious Winds, Birds, Voice of Nagasaki 등

9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수요음악회 9월 무대.



7일(제790회) The Lirico of Nobile

테너 박재화, 바리톤 최판수, 소프라노 김민성 등 실력있는 성악가로 구성된 더 리리코와 함께하는 클래식과 뮤지컬의 만남.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난다.

- 피아노/김아영

14일(제791회) 슈투디오 프리셰 클랭에 창단기념 작곡가 이승 렉처 콘서트

학구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정신과 호기심이 가득한 젊은 음악인들로 지난해 하반기 창단한 New Music/현대음악 전문 작곡 연주단체인 슈



투디오 프리셰 클랭에(SfK, 대표 이승은)의 창단기념 무대.

SfK는 대중과의 소통을 이유로 낭만주의 음악 조류에 머물러 있는 클래식 및 현대음악계에서 새로운 음과 전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SfK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피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부산 지역의 순수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작곡가 이승은(Su Lee)의 렉처 콘서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평소 동시대 사회현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작곡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창작곡을 시청각 자료와 해설을 통해 들려준다.

- 지휘/김성복 • 피아노/심정운
- 색소폰/김대훈 • 첼로/이금빈
- 바이올린/강예지 • 가야금/김지은
- 특별출연/부산대학창단

21일(제792회) 알레 미트 알렌과 함께하는 플로드 볼링

플루티스트 장예지, 피아니스트 진승민, 더블베이스리스트 우현수, 퍼쿠션리스트 조용운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 알레 미트 알렌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전설적인 플루티스트 장-피에르 랑팔이 참여하여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제2번'을 들려준다.

'크로스오버의 대명사'로 불리는 클로드 볼링은 실력 있는 재즈피아니스트이자 밴드 리더로, 재즈의 자유로움과 클래식의 엄격함을 탁월하게 조화시킨 음악으로 세계 음악팬을 매료시켜 왔다.



28일(제793회) 가을비에 젖다, 소나기

소프라노 정아영과 테너 김성현의 듀오 무대. 가을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작곡가 브람스, 차이콥스키,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 쇼팽, 슈만의 대표곡을 감상할 수 있다.

- 피아노/배필호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2022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9월 8일 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IPB 070-8018-8303



부산, 경남이 자랑하는 챔버 오케스트라로, 국내 최고의 앙상블로 발돋움하고 있는 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IPB) 정기연주회.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 리더를 초청, 객원 악장체제를 고수하는 유일한 단

체인 IPB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음악가이자 현재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교수로 있는 안드레이 비엘로우가 객원악장으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신포니아 다장조 RV112, RV116'과 비에나프스키 '파우스트 판타지 작품 20',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들려준다.

베이스 김정대 독창회

일 시 | 9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김정대 010-4785-9587



동덕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도독, 함부르크 브람스시립음대 전문연주자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베이스 김정대 독창회.

김정대는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해 오페라 주·조역 및 오라토리오 솔리스

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나부코', '에르나니', '루이자 밀러', '돈 카를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맥베드', '아틸라' 등 베르디의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소영
- 배우/배문수
- 게스트/테너 서치환, 바리톤 안세범

제11회 굿모닝콘서트 감성에 젖은 추억의 멜로디

일 시 |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1:00
울속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블랙업커피 포함,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울속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9월 무대.

지난 2016년, 성악가, 피아니스트, 현악, 국악연주자 등 전문음악인들로 구성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뮤

지품(MUSIKUM)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각 나라별 음악의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는 유럽, 한국, 영미권 나라의 음악들과 더불어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곡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얼굴, 마중, O Danny Boy, 지금 이순간 등 수록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Die Deutsche Welle 독일의 물결

일 시 | 9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앙상블 코스모폴리탄 010-7386-3456



지난 2010년 창단된 후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앙상블 코스모폴리탄의 무대. 부산클래식음악제(BCMF) 예술 부감독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텔레만, 바흐, 베버, 베토벤 등 바로크, 고전, 낭만을 대표하는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안은택, 박완서, 송범석, 성기쁨, 진성빈, 이상엽, 최진영
- 비올라/신요한, 천재현, 정하람
- 첼로/이일세, 윤성민
- 더블베이스/박경호 • 챔발로/강수근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환상의 음악여행 동물의 사육제&피터와 늑대

일 시 | 9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4세 이상 관람, 예매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지난 2012년 창단 후 로컬 문화 원형과 다양한 장르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온 코리아콘텐츠킴퍼니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클래식 음악회.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인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대형 스크린에 투시되는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림자극을 통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음악회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제15회 정기연주회 가을밤의 동화

일 시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우드윈드앙상블 010-5660-3919



지난 2005년 뜻을 같이 하는 목관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우드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특별연주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목관앙상블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밤의 동화'라는 주제로, 가을의 정취와 어울리는 클래식 명곡 및 드라마 OST를 들려준다.

- 플루트/김인호 • 오보에/안현영
- 클라리넷/원준연(리더) • 바순/장원영
- 호른/이민정 • 해설/김성희
- 특별출연/원지현(피아노)
- 협연/이다솜(바이올린)

2022년 바리톤 강경원 독창회

일 시 |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강경원 010-5129-4321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지휘자, 울산 늘푸른 합창단 지휘자, 울주 알프스 합창단 지휘자, 유엔평화합창단 지휘자, First Class 남성앙상블 리더, BS마린 캄머오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강경원 독창회.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디플롬, 엑자멘, 마이스터과정 졸업하고 체코 안톤 드보르작 콩쿠르 3위, 오스트리아 니코 도스탈 콩쿠르 3위, 독일 함부르크 로버트 슈톨쯔 콩쿠르에서 입상한 강경원은 이번 무대에서 1부 한국가곡과 말러의 '뤼케르트 시에 붙인 5개의 가곡'에 이어 2부에서는 소프라노 왕기현과 함께 도니체티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야'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2022 양성원 & 엔리코 파체 듀오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일 시 |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지적이고 독창적인 연주로 인정받고 있는 양성원과 깊이있는 섬세한 터치로 유럽 무대에서 정평이 나있는 엔리코 파체의 듀오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이 창작활동을 펼쳤던 전 기간에 걸쳐 작곡되어 베토벤의 고민과 그의 음악적 색깔, 철학 등이 담긴,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 무대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베토벤/첼로소나타 제1번 마장조 작품 5-1
 베토벤/첼로소나타 제2번 사단조 작품 5-2
 베토벤/첼로소나타 제3번 가장조 작품 69
 베토벤/첼로소나타 제4번 다장조 작품 102-1
 베토벤/첼로소나타 제5번 라장조 작품 102-2

부산오페라 2022 정기연주회 슈만 연가곡 시인의 사랑

일 시 | 9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부산오페라 010-7269-8776



부산오페라가 2022년 하반기 정기연주회 테마로 마련한 독일가곡 '원류와 지류 그리고 분수령' 첫 번째 무대. 테너 백광호, 피아니스트 윤소미나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베르트 슈만의 가장 유명한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을 사랑의 사계로 구성,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 중 '서정적 간주곡' 편에 실린 65개의 시 중에서 16개의 시를 발췌하여 곡을 붙인 '시인의 사랑'은 당시 클라라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으로 인해 힘겨워하던 슈만이 하이네의 시들 중에서도 특히 공감을 느낀 시들을 선택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기원 음악회

일 시 | 9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3대 대규모 국제행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무대.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박성완이 지휘하는 뉴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성대학교 초빙교수이자 부산 음악가협회 회장으로 있는 테너 김지호,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부수석 오혜원, 현 국회의원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김예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가 출연, 클래식 명곡 및 한국가곡, 오페라 아리아, 영화 OST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를 음악으로 그려낸 박성완 작곡 교향시 '부산 파노라마'를 들려준다.

을속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앙상블의 밤

일 시 | 9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을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을속도문화회관 220-5811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초대공연으로 마련하는 을속도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9월 무대. 지난 2015년 창단된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실내악 시리즈 연주회를 통해 정통 실내악의 매력을 선사해온 (사)더 솔로이스츠가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으로 클래식음악의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브리튼/심플 심포니

2022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 피아니스트 박영성 로맨틱 클래식

일 시 |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영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데 이어 2019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 입상하며 탄탄한 테크닉과 음악성으로 관객을 사로잡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과 꾸준한 끈기로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을 쌓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영성의 무대. '로맨틱 클래식'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페인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의 스페인 민요 모음곡, 수준높은 기교를 보여주는 비에나프스키의 파우스트 환상곡, 그리고 브람스의 마지막 바이올린 소나타까지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선율로 관객들을 만난다.

제85회 을속도 명품콘서트 감성듀엣 휴[HUE]가 들려주는 악방콘서트

일 시 | 9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을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시 20% 할인)
 문의 | 을속도문화회관 220-5811



팬데믹 시대, 서로에 대한 공감과 마음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작은 배려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 감성듀엣 휴[HUE]가 들려주는 '악방콘서트'. 팝페라 가수 류무룡, 김지현으로 구성된 팝페라 휴[HUE]는 2013년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남일방송 MBC 개국 60주년 기념 테마가수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동경예술극장에서 단독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무대는 팝페라 휴[HUE]가 약사가 되어 환자 역할을 맡은 연극배우들에게 노래 처방을 해주는 이색 무대로, 관객들에게 소통과 위로, 희망을 전한다.

연극

연극 러브 어게인

일 시 | 7월 21일(목)-9월 18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주)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내 생애 가장 설레이는 로맨스, 연극 '러브 어게인' 디자이너 서연은 대스타가 되고 싶은 민준의 꿈을 곁에서 늘 응원한다. 하지만 7년째 공연 바람 앞잡이만 하는 민준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현실적인 사정으로 둘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결국 서연이 민준과 이별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시간이 흐르고 박람회 방문차 한국에 잠시 들어온 서연은 민준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빼빼, 시티폰이 유행하던 1997년부터 유튜브 방송이 대세가 된 2021년까지의 그들의 달콤한 연애사가 펼쳐진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몰리 스위니 두개의 달

일 시 | 8월 31일(수)-9월 2일(금), 9월 6일(화)-7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해운대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시립극단 배우들과 그들의 연기에 오롯이 주목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

8월 31일(수)-9월 2일(금) 몰리 스위니 40년 간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여인의 개안(開眼) 수술과 관련된 회고적 진술을 37개의 독백으로 구성한 독특한 작품.
 • 작/브라이언 프리엘 • 연출/강성우



9월 6일(화)-7일(수) 두 개의 달 2016년 제2회 윤대성 희곡상 수상자인 임은재 작가의 창작극 '두 개의 달'. 특히 단원 염지선의 첫 연출작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극 오나의 귀신님

일 시 | 9월 8일(목)-2023년 1월 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9/13일 임시휴관)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평일 할인 1만8천원)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썬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조정석, 박보영 주연의 TV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은 연극 '오나의 귀신님'. 로맨스 작가를 꿈꾸는 모태 솔로 재림 앞에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그녀 한별, 달콤하기도 살벌하기도 한 그녀 몸에 귀신이 빙의되면서 엉뚱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기억을 잃어 갈 곳을 잃은 미스터리한 여자와 소원을 풀지 못해 십여 년째 구천을 떠도는 처녀귀신, 그리고 연애를 글로 배운 모태 솔로 남자와 펼쳐지는 달콤살벌한 로맨스가 관객들에게 많은 웃음을 던진다.

연극 벚꽃동산

일 시 | 9월 15일(목)-1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6:00, 일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극연구집단 시나위 010-9932-8103



배우 중심의 극단이라는 창단 이념 아래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시나위공연기획단의 명작시리즈 4탄 '벚꽃동산'. 안톤 체홉의 유작이자 마지막 장막극으로 체홉의 작품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벚꽃동산'은 지난 1904년 모스크바예술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적인 고전으로 사랑받아왔다. 특히 리얼리즘 연극의 걸작으로, 만년대학생 드로피모프와 아냐 사이의 수줍은 밀애, 불행의 사나이 에베호도프와 순진하고 허영의 찬 하녀 두나사, 그리고 악아빠진 하인 야샤 사이의 삼각관계 등 얽치락뒤치락하는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 인생을 이야기한다.
 • 연출/이기호

극단 따뜻한사람 복길잡화점의 기적

일 시 | 9월 24일(토)-25일(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극단 따뜻한사람 010-5268-2367



치매를 소재로 한 가족 휴먼극 극단 따뜻한사람의 '복길잡화점의 기적'. 지난 2017년 초연된 후 아내이자 엄마, 할머니인 '연화'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끈끈한 가족애가 관객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은 '복길잡화점의 기적'은 지난해 제39회 부산연극제 경연작으로 출품되어 연극제 기간동안 전석 매진을 이루는 등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극단 창단단원이자 수석단원을 역임한 박찬영 배우가 주인공 경석 역을, 제39회 부산연극제에서 이 작품으로 우수 연기상과 신인상을 각각 수상한 최현정, 배문수 배우가 경석의 아내 연화와 복길 역을 맡아 재미와 감동이 있는 따뜻한 무대를 선사한다.
 • 작/이민혁 • 연출/허석민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프로그램

왕국의 전설 잃어버린 이야기

일 시 | 9월 30일(금) 오후 2:00, 10월 1일(토)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10월 7일(금) 오후 7:30, 8일(토)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0월 14일(금) 오후 7:30, 15일(토)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동래문화회관 550-6611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지역문화예술회관 공동 제작으로, 지역별 신작 콘텐츠를 보급하여 지역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프로그램 '왕국의 전설 잃어버린 이야기'.
 • 작, 연출/김지용
 • 출연/박찬영, 박호진, 배진만, 이동현, 송준승, 김상호, 박준서, 윤준기, 김아람, 박선 외

2022 부산 예술 갈매랑 축제

일 시 | 9월 1일(목)-29일(목)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전시장·야외광장
 문 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bsart.or.kr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복합예술제 '2022 부산 예술 갈매랑 축제'. 우리나라 대중가요사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 부산 지명이 들어가거나 부산 사람이 부르는 등 부산과 인연이 있는 노래를 대상으로 곡에 얹힌 뒷 이야기를 극과 노래, 해설로 선보이는 악극 '부산의 노래'와 퓨전국악&브라스 밴드의 무대, 단편영화 상영회,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9월 1일(목)-2일(금) 오후 7:00 공연장 악극 '부산의 노래'
 • 작/김민수 • 연출/이정남
 • 출연/김형균, 박형규, 노연희, 심미란, 조영미, 김성은, 박유흠, 이민성, 지연실, 정경화

- 반주/마상령(색소폰), 홍성률(피커션), 김혜영(피아노), 최한술(소프라노), 정수정(소프라노), 이태홍(테너), 김우주(바리톤)
- 9월 3일(토) 오전 11:00 야외광장 퓨전국악&브라스 밴드 '우리가치 소통소통'
 • 출연/아랑고고장구 부산지회 예술단, 국악실 내악단 길, 국악그룹 트락, 아르고 윈드 오케스트라
- 9월 3일(토) 오후 1:00 공연장 단편영화 상영회 '고마, 갈매리!', '시선'
- 9월 5일(월)-8일(목) 전시장 부산을 담은 릴레이전 '부산 미술의 원천을 열다' 부산 화단을 이끈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공예, 수채화, 판화 등 원로작가 25인의 작품전.
- 9월 14일(수)-18일(일) 전시장 부산을 담은 릴레이전 '사진과 시로 부산을 담다' 부산문인협회, 부산사진가협회 회원의 시화작품을 한 공간에서 전시, 사진을 보고 시를 읽는 즐거움을 전해준다.
- 9월 22일(목)-29일(목) 전시장 부산을 담은 릴레이전 'Objet展' 부산의 젊은 건축가가 생각하는 '건축적인 것'이 무엇인지 건축가의 시선과 작품으로 만나본다.

행사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 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영상해설 감상회'.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의 해외연주회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 사계 중 '가을', 베토벤 '전원교향곡'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비제 '아를르의 여인', 차이콥스키 '비창교향곡' 헨델 오페라 '리날도', 비발디 '화성의 영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슈베르트 '밤과 꿈' 특집 '홍난파 가곡 모음감상회'

9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12일 휴강),
 15일(목) 오전 11:00, 17일(토), 24일(토)
 오전 10: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5일(월) 오후 7:00 포스트 시네마(post cinema) 시대의 영화
 • 발제/차민철(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토론/김대환(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겸임교수)



15일(목) 오전 11:00 낭송과 낭독 그리고 '나무는 불꽃이다(이나열 시집, 전망, 2017)'
 19일(월) 오후 7:00 제3의 흐름, 노 브랜드 시네마(No Brand Cinema)
 • 발제/김영광(영화평론가)
 • 토론/예술철학자

17일(토) 오전 10:00 요산문학관 탐방 (특강:요산의 삶과 문학)
 • 강사/황국명(요산문학관 관장)

24일(토) 오전 10:00 이주홍문학관 탐방 (특강:향파의 삶과 예술)
 • 강사/박진규(이주홍문학관 관장)

26일(월) 오후 7:00 휴머노이드(Humanoid)가 온다
 • 발제/김남호(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 토론/정명숙(울산신문 논설실장)

제17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가을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정길언 시인 외 초대시인

9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9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시리즈(뉴욕 페트판)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2일(금) 제1부 '라인의 황금'
 16일(금) 제2부 '발퀴레'
 23일(금) 제3부 '지크프리트'
 30일(금) 제4부 '신들의 황혼'



전시

스누피 한국특별전 Snoopy, Beyond the Space

일 시 | 5월 5일(목)-9월 11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장료 | 입장료 1만2천원
 문 의 | KT&G 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사상생활사박물관 마음에 새겨진 기억, 옛 얼굴을 그리다

일 시 | 5월 17일(화)-9월 18일(일)
 사상생활사박물관
 문 의 | 사상생활사박물관 310-5136, www.sasang.go.kr
 ...
 엄궁동 출신 만화가 김광성이 그리는 1960, 70년대 엄궁동 풍경을 그린 수묵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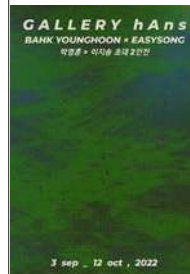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모든 것은 서로를 만들어 나간다

일 시 | 7월 15일(금)-10월 1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소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0-2690

박영훈, 이지송 초대 2인전

일 시 | 9월 3일(토)-10월 12일(수)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한스 784-0233



20여년간 CF감독으로 지내온 시간을 뒤로하고 현재는 순수미술을 하고 있는 이지송 작가와 디자인 너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대학에서 제자를 양성해온 박영훈 작가의 초대 2인전.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서울, 7월 대구에 이어 이번 부산을 거쳐 다시 서울로 연결되는 아트로드 쇼 세 번째 전시이다.

BOOK



나는 해녀입니다 해녀 김복례 할머니 이야기

김여나 글, 장준영 그림
키큰도토리 / 1만 4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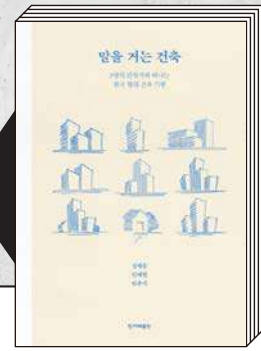
제주도에서 기장군으로 출항한 육지 해녀 김복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림책. 젊었을 때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삶을 개척했던 김복례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굴기도 한다. 그래도 여전히 바다를 좋아한다. 기장의 푸른 바다는 할머니가 바다에서 힘차게 물질하던 젊은 날의 추억을 되돌려 준다. 육지에서는 보일 수 없었던 눈물을 바닷속에서 마음껏 흘리던 때를 생각할 지도 모른다. 이 책에는 김복례 할머니의 고단하고 힘든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러한 할머니의 모습은 어린이들에게는 할머니를, 어른들에게는 부모님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김여나 작가는 기장 바닷가에 살며 해녀 이야기를 썼다. 2020년부터 기장군 보에 '기장군 18개 갯마을과 해녀 이야기'를 연재했고, 해녀 할머니들의 자서전인 <나는 해녀다-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을 썼다. 김복례 할머니는 그 자서전에 실린 여섯 해녀 할머니들 중의 한 분이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을, 김여나 작가가 자서전에 이어 그림책으로 다시 이루어 드렸다. 그림을 그린 장준영 작가는 아름답고 잔잔한 그림으로, 할머니의 일생을 육지에서 힘든 삶과 바닷속에서의 자유로움을 대비시키며 표현했다.



거의 모든 것의 바다

박수현 지음 / 지성사 / 10만 원

수중사진가·해양사진가인 국제신문 박수현 기자가 바다를 책에 담았다. 스쿠버 다이빙으로 2,300회 바닷속을 드나들며 만난 무수한 바다생물의 삶을 사진과 글로 담아 바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전하는 수중 탐사 기록이다. 바다생물 서식 환경, 바다의 신비, 바다가 처한 상황을 낱알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다. 저자는 우리나라 전 연안과 남극·북극을 비롯해 세계 20여 개국을 찾으며 바다에서 희망을 캐고 생명을 전하고자 노력해왔다. 바다를 사랑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984쪽의 책도 묵직하다. 목차를 보면 저자가 저 넓고 깊은 바다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개하려는지 짐작이 된다. 1부는 '바다, 그 경이로움의 세계'이다. '지구, 그리고 생명체의 탄생' '바다의 크기' '바다에 존재하는 소금' '바닷물의 움직임'... 바다를 처음 열어주는 소제목들을 이어서 읽으면 바다를 주제로 한 시가 된다. 2~5부는 바다생물을 분류해 소개했다. 그 종류는 방대하다. 바다를 대표하는 생물의 독특한 생태와 이름 유래는 흥미롭다. 물고기 말고도 드넓은 바다에 깃들어 사는 여러 바다생물에 관해 현장감 넘치는 사진을 곁들여 온갖 이야기를 펼친다. 생동감 넘치는 사진이 잇따라 나타나며 자꾸 시선을 빼앗는다. 각 주제를 보강하는 그림이나 자료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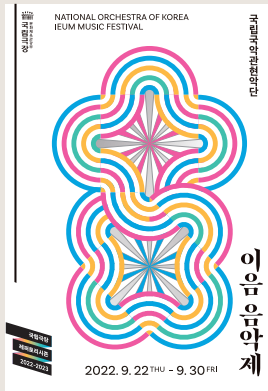
말을 거는 건축

정태종 외 지음 / 한겨레출판
2만 2천 원

건축물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과 움직임은 물론 생각까지 담고 있는 그릇이다. 부산 영도의 흰여울마을을 떠올려보자. 골목길을 내려가면 바다로 풍덩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 마을이다. 전망대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서든 바다가 잘 보인다. 이 마을에 '흰여울전망대'가 있다. 엄준식 건축가는 "양방향으로 개방된 박공지붕의 집 형태로 두 개의 매스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와 집은 자연과 인공의 만남을, 양쪽이 개방된 것은 바다와 육지의 소통을 의미하는 듯하다"고 설명한다. 안대환 건축가는 "흰여울전망대는 집의 형태를 하고 있다. 집안에서 바다를 본다는 개념이다"라고 부연한다. 정태종 건축가는 "전망대라기 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좌표에 가깝다"고 말한다. 건축가 3인이 흰여울 전망대를 보고 각각 남긴 글을 읽다 보니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정태종 안대환 엄준식 건축가가 한국 현대 건축 기행을 떠났다. 서울 북촌마을, 제주 돌집 등 전국에서 찾은 30개의 개성 있는 건축물을 사진 150장과 함께 소개한다. 건축물마다 건축가 3인이 각각 글을 썼다. 건축과 공간, 삶과 관계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비슷한 듯 다르다. 서로의 시선이 자유롭게 교차하는 점도 이 책의 매력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이음 음악제 참가

9월 28일 국립극장 해오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한국 창작음악의 오늘과 내일을 잇는 국립부산국악관현단 '이음 음악제'에 초청받아 9월 28일 국립극장 해오름 무대에 선다.

지난해 첫발을 내딛은 '이음 음악제'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만나 역사를 잇고 장르와 장르가 만나 새로움을 창조하며 예술가와 예술가를 연결하는 창작음악 축제로, 올해 무대에서는 '비비드(Vivid)'를 주제로, 참여 예술가의 색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를 통해 동시대 음악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한국 창작음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이번 무대는 오늘날 국악관현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고, 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무대로, 해양 도시만의 활발함이 살아있는 레퍼토리로 서울 관객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대하(거문고), 정선희(판소리), 한영길(대금), 최영훈(아쟁), 오상훈(거문고)이 협연을 맡아 'Knock'(김백찬 곡), 거문고 협주곡 '비상'(신주연 곡), 국악관현악 '바다'(이정호 곡), 판소리 협주곡 '자룡, 만경창파를 가르다'(박상우 곡), 남도 시나위에 의한 3중 협주곡 '내일'(김성국 곡) 등 다양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지난 1984년 창단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한국음악의 대중화 및 현대화, 그리고 생활화를 추진하며 국내외 한국 전통문화의 위상을 드높여왔다. 현재는 제9대 김종욱 수석지휘자와 함께 열정적이고 참신한 레퍼토리로 우리음악의 예술적 향상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區문화회관 순회공연

9월 16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이 지역문화 활성화와 시민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9월 16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區문화회관 순회공연을 펼친다.

'舞樂 고요의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황혼에서 새벽까지 자연의 색과 의미를 담은 춤과 음악의 향연으로,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운 예술감독이 중점을 두고 있는 호흡, 접지, 곡선, 명상 등의 춤 기법을 통해 내면의 근원에 집중하는 민속성 강한 작품들인 '운무雲霧', '춘설春雪' '고혹蠱惑' 등 세 작품을 선보인다.

'운무雲霧'는 구름과 안개의 속속처럼 예측 불가능한 관계와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실체를 가면무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며, '춘설春雪'은 무용가 배정혜의 '꽃춤'을 재구성, 안무한 작품으로 깊은 호흡에서 온 몸으로 전해지는 생명의 기운과 미려한 떨림의 움직임 표현한 작품이다. 거문고 독주곡 '버닝(Burning)'을 해석한 독무인 '고혹蠱惑'은 여인의 고혹미를 부각시킨 작품으로, 강렬한 움직임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열정과 열망의 춤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오고무, 한량무, 풍류장고, 소고춤, 고성입춤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재)부산문화회관,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지역문화예술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4일, (재)부산문화회관은 대구를 대표하는 주요 문화예술기관인 (재)대구오페라하우스(대표 박인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재)대구오페라하우스는 매년 대구오페라축제를 개최, 수준높은 무대로 대구를 ‘오페라의 도시’ 반열에 올리며 지역 예술계의 모범답안으로 꼽히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을 위한 ‘2022 부산오페라시즌’의 메인 프로그램인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을 공동제작, 보다 수준높은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8월 10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인 부산대학교(대외협력부총장 김석수)와 ‘지역 문화예술 역량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으로 예술 관련 학과가 다수 폐과되는 등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역 문화예술계 발전과 대학의 공연/전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사)만사소년(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과 체결했다. (사)만사소년은 위기청소년 및 모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8월 19일 열린 업무협약에서는 소년보호재판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참석했다. 양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위기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동행을 함께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9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9월에도 다양한 곳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일정

- 9월 1일(목) 오후 1:30 안창마을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9월 2일(금) 오후 2:00 부산진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9월 6일(화) 오후 2:00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_부산시립합창단
- 9월 7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9월 14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9월 15일(목) 오전 11:00 2022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 개막식_부산시립무용단
- 9월 21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9월 23일(금) 오후 2:00 살루스플러스데이케어_부산시립무용단
- 9월 23일(금) 오후 6:30 북구청 찾아가는 야외음악회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9월 27일(화) 오후 2:00 자매정신요양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9월 28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PROGRAM**

2022.8-12월
August-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2022 4분기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요절복통 뮤지컬로 읽는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문화 | 사랑채 2022.7.2.(토)-8.28.(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2세 이상 관람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문화 | 중극장 2022.7.8.(금)-9.(토)
금 7:30pm / 토 2:00pm 6:00pm
R 60,000원 S 40,000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 | 중극장 2022.8.19.(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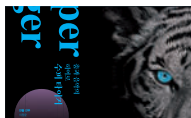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뚜를 찾아라>

문화 | 대극장 2022.8.20.(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평범한 청년들의 범상치 않은 이야기!
<수퍼 타이거(Super Tiger)>

문화 | 대극장 2022. 8. 26.(금)-27.(토)
금 8:00pm / 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첼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첼로 협연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문화 | 대극장 2022.9.14.(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
<에코백>

문화 | 사랑채 2022.9.15.(목)-10.9.(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



세계적 마에스트로가 선사하는 음악 선율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9.21.(수) 7:30pm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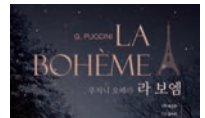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문화 | 중극장 2022. 9. 23.(금)-24.(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린 현실에 수놓이는 영원한 청춘의 낭만
오페라 <라 보엠>

문화 | 대극장 2022.10.1.(토)-2.(일) 3: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 거장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2.10.26.(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전하는 희망의 노래
<부산오페라갈라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11.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이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가
한국 대표 연출가 고선웅의 중국 고전!

<회란기>

문화 | 중극장 2022. 11.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대극장 2022.11.9.(수) 7:30pm
※ 티켓 추후 오픈



해피 바이러스 대니의 음악에 누구나 커넥트되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문화 | 대극장 2022.11.20.(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바이올린 대니 구 | 피아노 원재연 ※만 7세 이상 관람



박근형 연출의 히트작
경숙이父女의 열차락뒤치락 가족사!
<경숙이, 경숙아버지>

문화 | 중극장 2022. 11. 25.(금)-26.(토)
금 7:30p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겨울을 알리는 O.S.T의 향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생정과 열정 사이>**

문화 | 대극장 2022.12.3.(토) 5:0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과
젊은 거장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무대
사라 장&비르투오지

문화 | 대극장 2022. 12. 18.(일) 5:00pm
V 130,000원 R 11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밴드

<블랙스트링 콘서트>

시민 | 소극장 2022.10.1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내일의 우주로 떠나는 환상적 모험!

<갤럭시 일루전 쇼>

시민 | 소극장 2022.10.22.(토) 5:00pm
전석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왕의 말을 기록하는 승정원에서 벌어지는 사건!

<후설>

시민 | 소극장 2022. 10. 29.(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특유의 감성으로 매료되는 '스탠딩에그'
번뜩이는 위트로 사랑받는 믿음의 밴드 '소란'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2.12.17.(토) 6: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이금이 작가 동명소설 원작
유패하게 상처를 치유하는 두 명의 유진

<유진과 유진>

시민 | 소극장 2022. 12. 30.(금)-31.(토)
금 7:30pm / 토 2:00pm, 7:00pm
R 50,000원 S 40,000원 ※만 9세 이상 관람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8.31.(수)-12.28.(수)
매주 수요일 7:00pm
전석 무료



부산시민회관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수궁가

국립창극단 <귀토>

시민 | 대극장 2022.8.12.(금)-13.(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시민 | 대극장 2022.9.29.(목)-10.1.(토)
목, 금 10:00a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3세 이상 관람



페스티벌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부산 지역 예술가! 부산 지역 예술가에 의한!
부산 지역 예술가를 위한!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대극장 2022.10.11.(화)-11.18.(금)
시민 | 대·소극장
※ 티켓 가격 및 세부일정 추후오픈



부산시립예술단 2022 하반기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해운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광현 | 작곡 노재봉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선욱 | 소프라노 한재민



기획연주회

실내악공장 2

문화 | 챔버홀 2022. 8. 12.(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202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문화 | 대극장 2022. 9.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 소프라노 이명주



기획연주회

심포니야夜

문화 | 대극장 2022. 9. 22.(목) 7:30pm
전석 10,000원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9.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6

문화 | 대극장 2022. 10. 6.(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문화 | 대극장 2022. 10. 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신창용



기획연주회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10. 13.(목) 7:30pm
전석 2,000원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7

문화 | 대극장 2022. 11. 1.(화) 7:30pm
전석 5,000원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回甲)

문화 | 대극장 2022. 11. 2.(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 오르간 신동일



기획연주회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11. 17.(목) 9:00pm
전석 5,000원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2022. 12.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윤한결 | 바이올린 임재홍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8

문화 | 중극장 2022. 12.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문화 | 중극장 2022. 12.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황수미 | 호른 이석준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2310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안무 박근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무용 더파크댄스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전석 10,000원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 5,000원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칸타타 '일향악세계기'

문화 | 대극장 2022. 7. 8.(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남량특집 '미스터리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7. 27.(수)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작·편곡 박한규, 이경은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8. 19.(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사화 윤종강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향연

문화 | 중극장 2022. 9. 20.(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문화 | 중극장 2022. 10. 7.(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River Dance 프로젝트

문화 | 대극장 2022. 12. 1.(목)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연출안무 이정윤
작곡 이경은 |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평일 08:00pm, 주말 5:00pm
안무 이정윤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II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3.(토)
평일 08:00pm, 주말 4:00pm, 8:00pm
R 30,000원 S 20,000원
안무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평일 08:00pm, 주말 5:00pm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시작-HAMLETique

문화 | 중극장 2022. 7. 15.(금)-17.(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재구성 연출 강태욱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1 '올리 스위니'

해운대문화회관 2022. 8. 31.(수)-9. 2.(금)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브라이언 프리엘 | 객원연출 강성우
출연 이혁우, 오희경, 채민수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2. 9. 20.(화)-24.(토)
평일 10:30am, 2:00pm(단체관람 공연), 토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이보람 | 객원연출 최용혁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2 '두 개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2022. 9. 6.(화)-7.(수)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임은재 | 연출 염지선
출연 김은오, 서보기, 이태성



제73회 정기공연

장막희곡 당선작

문화 | 대극장 2022. 11. 25.(금)-26.(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With

문화 | 챔버홀 2022. 7. 30.(토) 5:00pm
무료



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러

문화 | 대극장 2022. 9. 6.(화) 7:30pm
전석 5,000원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0. 25.(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11. 5.(토) 5:00pm
무료



제69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2. 6.(화) 7:30pm
전석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4.(금)-5.(토)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2022. 12. 10.(토)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극단, 무용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부산시립예술단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

부산문화회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복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복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복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국립창극단 <귀토>

8월 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3:00 **종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8월 19일(금) 오후 7:30 **종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뚜를 찾아라

8월 20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수퍼 타이거(Super Tiger)

8월 26일(금) 오후 8:00, 27일(토)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2 퀴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9월 14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9월 23일(금) 오후 7:30, 24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9월 29일(목)-30일(금) 오전 10:00, 10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0월 1일 공연에 한해 R석 20매)

오페라 <라 보엠>

10월 1일(토)-2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블랙스트링 콘서트

10월 14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R석 20매)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10월 2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연극 <후설>

10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회란기>

11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11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11월 25일(금) 오후 7:30, 2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12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12월 17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20매)

사라 장&비르투오지

12월 18일(일) 오후 5:00 **종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뮤지컬 <유진과 유진>

12월 30일(금) 오후 7:30, 31일(토) 오후 2:00,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R석 10매)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Francis Poulenc

Quatre motets pour un temps de pénitence

John Tavener

Svyati

Petr Eben

Prager Te Deum

Béla Bartók

Vier Slowakische Volkslieder

외 다수



지휘 임희준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첼리스트 박건우

2022. 9. 15^{THU} 7: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티켓 | 10,000원
| 문의 | 607-6000(ARS1번)

|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 예매 | www.bscc.or.kr



지휘 김진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전통음악의 밤

- 1부 관악합주 '함령지곡'
현악 취타 '수요남극'
피리 독주 '자진한잎'(염양춘)
단소, 양금 병주 '헌천수'
- 2부 대금산조 (원장현 류)
남도민요 '육자배기'
경기 도당굿



2022. 9. 20 TUE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10,000원 ·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2

2022 가족발레 7-10세의 경이

글/우상열(동리만생)
그림/정재순

2022. 9. 29.(목) ~ 30.(금) 10시, 10. 1.(토) 1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노래가 들려.
모든 싸움을 멈추게하는...

그때도 오늘



이희준

이시언

김설진

오의식

2022.9.23 fri 7:30pm - 9.24 sat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맛집 BSCC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SCC사진 맛집
#부산문화회관극장 #부산시민회관극장 #포토 존

여러분이 포착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아름답거나 재미있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공유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풍경 등을 담아도 되고, 여러분의 멋진 포즈를 담아도 좋습니다!
이벤트 주제에 맞는 멋진 사진을 공유해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

2022년 7월 27일(수)~9월 15일(목)

🌲 포토존 주제

부산문화회관 극장 또는 부산시민회관 극장(내·외부, 로비 모두 가능)

📷 참여 방법

사진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극장 #부산시민회관극장

🎁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10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 유의 사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 당첨 상품은 정해진 금액에 상당하는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051-607-6126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9.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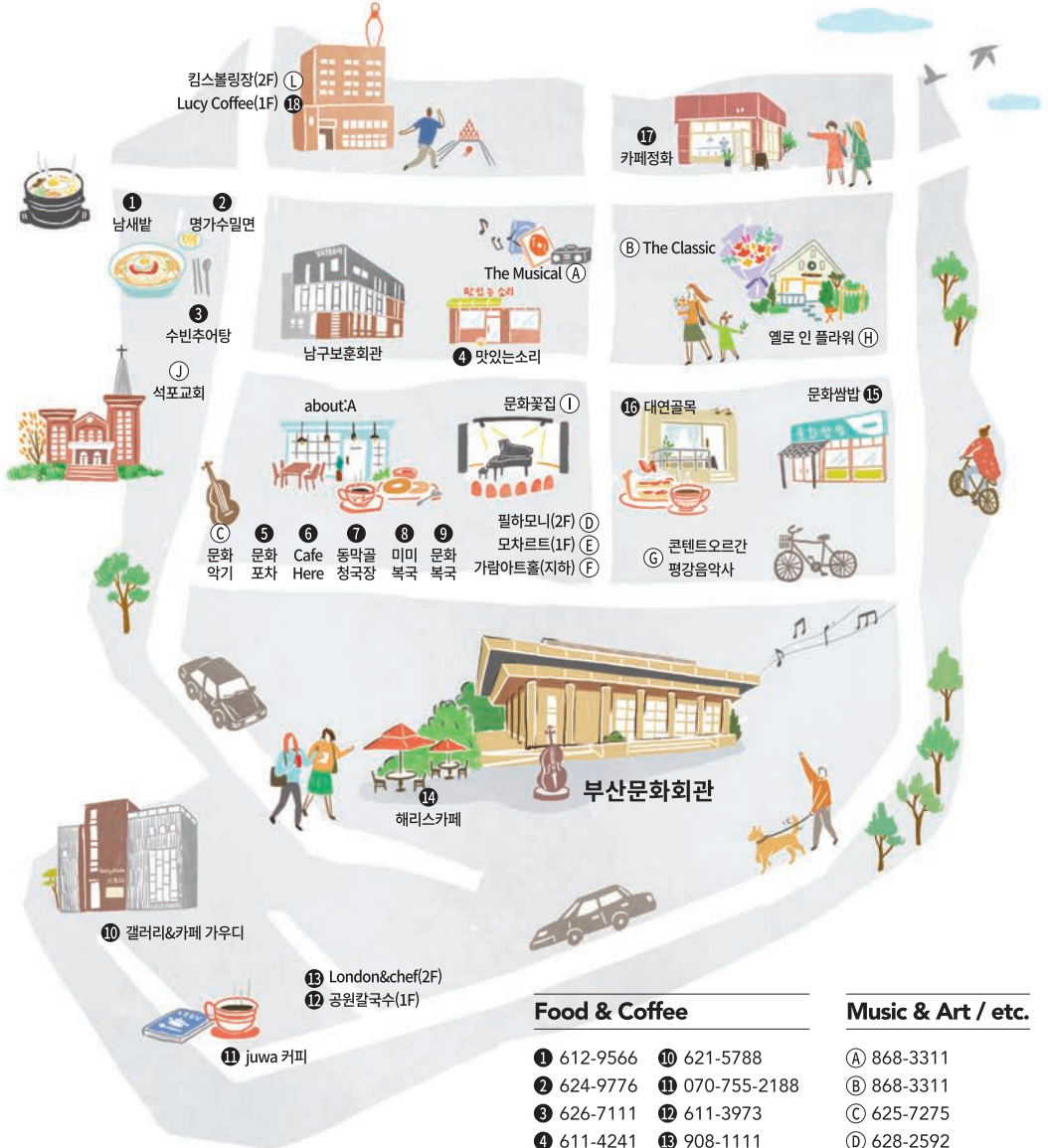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 ② 624-9776
- ③ 626-7111
- ④ 611-4241
- ⑤ 626-4448
- ⑥ 622-7412
- ⑦ 611-3589
- ⑧ 628-8009
- ⑨ 621-7040
- ⑩ 621-5788
- ⑪ 070-755-2188
- ⑫ 611-3973
- ⑬ 908-1111
- ⑭ 625-9402
- ⑮ 626-2292
- ⑯ 010-3996-6498
- ⑰ 623-0772
- ⑱ 628-3832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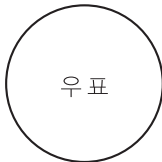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INVITATION TO THE ARTS
2022 9 SEPTEMB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G. PUCCINI LA BOHÈME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지휘 백진현

연출 엄숙정

로돌포 정호윤 권재희

미미 황수미 박하나

마르첼로 문정현 김종표

소나르 한정현 유용준

콜리네 박순기 권영기

무제타 강소영 박현진

베두아 알친도르 여지훈

파피플 이상원

2022. 10. 1 SAT - 2 SUN 3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